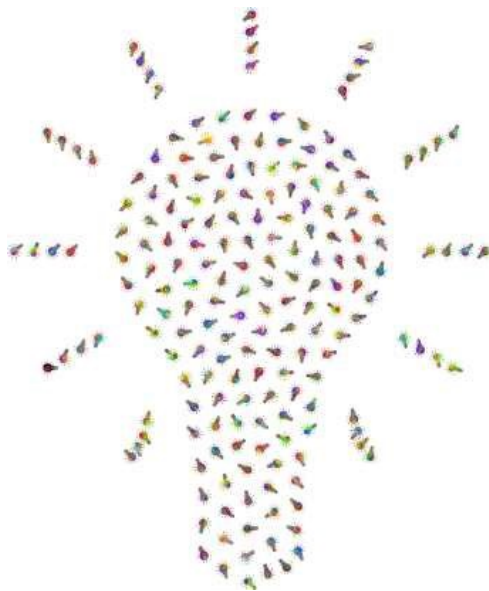


피램' S

평가원 기출 Daily

(1주차) - 해설지



## 해설지의 사용법

“P.I.R.A.M 국어 개념편” 해설지의 사용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왜’ 맞고 틀렸는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며 지문을 읽고 선지를 판단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과정과 저의 사고과정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지문의 모든 문장과 문제의 모든 선지들에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을 때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문을 남기지 않는 과정은 곧 여러분의 견고한 ‘생각의 틀’이 되고, 이는 시험장에서 정말 큰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물론 이 교재에 있는 지문들의 대다수가 개념편에 있는 지문들보다 훨씬 쉽기에, 해설이 다소 짧고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굳이 풀어야 돼?”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교재에 실어둔 5개년 이상의 과거 기출문제들을 굳이 풀지 않고도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이 있고, 너무 옛날 지문은 출제하는 포인트가 달라 최근 수능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니깐요.

하지만 이 해설지를 이용해서 천천히 공부하시다보면, 결국 과거의 기출문제들과 최근의 기출문제들이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일정하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소 단순하게 물어보기는 해도, 개념편에서 배운 내용들을 적용 연습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도구가 없다는 것 역시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다 맞히고 근거를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문의 어떤 점을 문제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었어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세요. 그 답은 모두 “P.I.R.A.M 국어 개념편”의 내용과 이 해설지,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 그리고 그 속에서 다져지는 국어 실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역시 최선을 다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제 교재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Day 1

[1~4] ☆☆

광고에서 소비자의 눈길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요소는 **유명인 모델**이다. 일부 유명인들은 여러 상품의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계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중복 출연은 과연 높은 광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광고에 나오는 유명인 모델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화제를 그냥 알려주고 있는데요. 받아 먹어봅시다.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겠죠? 우리는 이제 유명인의 광고 중복 출연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 하면서 읽어야겠네요. 이런 태도 확실하게 잡고 계시죠?

어떤 모델이든지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갖는 인물** 이어야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카메라, 공기 청정기, 치약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자체의 성능이나 효능이 중요하므로 대체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모델이 적합하다.** 이와 달리 상품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보석, 초콜릿, 여행 등과 같은 상품은 매력성과 친근성을 갖춘 모델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유명인이 그들의 이미지에 상관없이 여러 유형의 상품 광고에 출연하면 **모델의 이미지와 상품의 특성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한 말로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됩니다. 적합한 이미지를 가지면 효과가 커지겠죠! 이것 강조하고 싶었는지 성능, 효능이 중요하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모델이,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하면 매력성과 친근성을 갖춘 모델이 어울린다는 예시를 들어 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들이 비교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차이점을 생각하는 태도가 갖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연습하던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적합한 이미지를 가지는 게 좋은데,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화제는 ‘중복 출연의 광고 효과’입니다. 그럼 ‘중복 출연해서 이미지가 안 맞으면 효과가 없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네요. 화제에 집중해서 읽는 습관이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중복 출연이 소비자가 모델을 상품과 연결시켜 기억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도 광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명인의 이미지가 여러 상품으로 분산되면 광고 모델과 상품 간의 결합력이 약해질 것이다. 이는 유명인 광고 모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광고 상품에 전이하여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중복 출연은 모델과 상품의 연결성을 약화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지문은 화제인 ‘중복 출연의 효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지가 안 맞을 수 있고, 모델과 상품의 연결성도 약화될 수 있으니까!

또한 유명인의 **중복 출연 광고는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다.** 유명인 광고 모델이 여러 광고에 중복하여 출연하면, 그 모델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강하게 각인된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유명인 광고 모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어 광고 메시지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신뢰성을 가지고 와서 중복 출연을 까고 있습니다. 쉬운 지문이지만, 이렇게 화제의 흐름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복 출연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건 기본인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지가 문단마다 다르잖아요! 쉬운 지문이라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유명인 모델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명인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 한 상품의 광고에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경우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상품을 기억하기 쉬워지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된다. 유명인의 유명세가 상품에 전이되고 소비자가 유명인이 진실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결국 유명인 모델 중복 출연시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 광고에 중복 출연하는 유명인이 많아질수록 외견상으로는 중복 출연이 광고 매출을 증대시켜 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델의 중



복 출연으로 광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광고비가 과다 지출되어 결국 **광고주와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유명인을 비롯한 광고 모델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까지 중복 출연을 까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져오네요. 이 지문은 '중복 출연하지 말고, 하나만 해!'하는 지문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읽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
|-------------|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             |

### 1.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7% | 2% | 4% | 2% | 85% |

① '현상의 원인 분석'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중복출연이 야기하는 다양한 부정적 상황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양한' 해결책은 답이 되기 힘들죠? 여기서 제시한 해결책이라 해봐야 중복 출연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② 광고 외에 다른 사례를 가져온 것은 찾기 힘들죠?

③ 자료...? 이론...? 둘 다 찾기 힘드네요.

④ 절충이요?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절충은 웬만하면 답이 되기 힘들습니다. 두 이론의 중간쯤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지문은 그러고 있지는 않네요.

⑤ 통념(중복출연이 당연하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중복출연이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다양한 근거들(이미지, 제품 연결성, 신뢰도 등등)을 들고 있었죠? 완벽한 답이네요. 이런 논지 전개 방식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게, 확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가 실력차이입니다. 화제를 잡고 읽는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 2.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5% | 89% | 2% | 1% |

- <보기> 문제네요. <보기>부터 조져 봅시다. 모델 A는 전문성, 신뢰성이 높고 모델 B는 친근성, 매력성이 높네요. 아까 이런 모델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비교되는 거 인식하고 있었죠? 심지어 '이미지와 광고 효과의 관계'라는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예시'이기도 했었구요. 그 기억을 토대로 바로 판단하시든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시든 모델 A는 성능과 효능이 중요한 광고에, 모델 B는 감성적인 느낌이 중요한 광고에 투입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① 네 모델 A는 카메라처럼 성능이 중요한 광고에 나와야 합니다.

② 그렇죠. 모델 A는 저런 감성적인 광고에는 나오면 안 돼요!

③ 모델 B는 감성적인 광고에 나와야 하는데, 치약과 여행이 성능이 중요한 건지 감성이 중요한 건지 좀 애매한가요? 그럼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물어보는 게 '치약, 여행이 감성적인 광고니?'니까 확인해보는 겁니다. 치약은 성능이 중요한 상품의 예시로, 여행은 감성이 중요한 상품의 예시로 등장했네요. 그럼 이 두 광고에 중복 출연하면 이미지가 안 맞으므로, 광고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④ 초콜릿은 감성이 중요한 상품이었죠? 모델 B가 더 어울릴 겁니다.

⑤ 공기 청정기는 성능이 중요하죠? 모델 A가 더 어울리겠네요.

<보기>를 미리 정리해서 풀었는지, 각 상품들이 성능 쪽인지 감성 쪽인지 헷갈렸을 때 여러분의 뇌피셜이 아닌 지문의 '예시'에 근거해서 판단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 3.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7% | 4% | 7% | 79% |

- 발문부터 볼까요?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일단 그 주장을 깔 수 있는 근거부터 찾아야겠어요. 일단 윗글의 핵심 주장은 '유명인의 광고 중복 출연은 안 좋다.'입니다. 이걸 깔 수 있는, 즉 유명인의 광고 중복 출연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봅시다.

① 매체의 특성이요? 이것과는 관련 없어요. 중복 출연해서 좋나 이겁니다! 발문을 보고 미리 '생각'을 해놔야 해요.

② 광고 횟수와도 상관없어요! '중복 출연 여부'를 골라야 합니다.

③ 유명한 광고 모델의 부정적 이미지? 지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핵심은 중복 출연입니다. 중복 출연의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야 해요.

④ 한 광고에 모델이 여러 명이냐가 핵심이 아니라구요! 중복 출연은 왜 안 나올까요?!? 기다리느라 목 빠지겠네요.

⑤ 오 드디어 나왔네요. '그 유명인이 등장하는 다른 상품들의 광고', 즉 중복 출연을 하면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던 정보네요. 애를 보고 그때서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번 문제들의 핵심은 정답을 맞히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실제로 정답률이 모두 8~90%대인 아주 쉬운 문제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게 맞히느냐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지문이 요즘에는 나오지도 않지만, 만약 나온다면 여기서 시간을 아끼고 어려운 지문에 투자할 시간을 벌어야 해요.

4.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82% | 7% | 4% | 3% | 4% |

[5~7] ☆☆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 덕분에 가히 혁명이라 할 만한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검색형 독서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으로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놀라우리만치 쉬워진 환경에서 가능해졌다. 독자는 그야말로 사용자로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독자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20세기 후반! 이때부터 '검색형 독서'라고 하는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고 해요. 시간이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체크하면서, '이 시기부터 정보 처리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같은 게 중요해졌구나~' 정도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쪽 읽어 가는데, '과거'에는 어땠을까? 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 즉 20세기 후반이 되기 전의 독서 방식이 이 지문의 화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봅시다. 이제는 숨 쉬듯이 할 수 있죠?

초기의 독서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쓰인 글이 완전해지려면 소리 내어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어쩔 수 없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봐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흡사 종교 의식을 치르듯 성서나 경전을 진지하게 암송하는 낭독이나,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자 먼저 초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때인데, 이때는 소리 내어 읽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두루마리의 한계라는 이유 때문에도, '낭독-듣기'가 보편적인 독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가볍게 이 시대의 특징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던 12세기 무렵 독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의 발명이었다. 공동생활에서 소리를 최대한 낮춰 읽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책자

형 책은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 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묵독을 도왔다. 묵독이 시작되자 낱말의 간격이나 문장의 경계 등을 표시할 필요성이 생겨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다. 이와 함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점차 등장했다. 이러한 묵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12세기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생겼네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변화를 명시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엇이 변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묵독'의 발명입니다. 그리고 이 묵독은 또 다른 변화를 낳았는데, 바로 '띄어쓰기&문장 부호의 발달',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의 등장', '분석적 읽기가 가능해짐' 정도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하긴 쉽죠? 시간이 흐르면서 독서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음독과 묵독이 공존하던 18세기 중반에 새로운 독서 방식으로 **다독**이 등장했다.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전에 책을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고, 독서 조합과 대출 도서관 등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전 시대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을 여러 번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가 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제는 **분산형 독서**가 행해졌다. 이것은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를 뜻한다.

무려 600년이 지났습니다. 6년만 흘러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 600년이면 진짜 큰 변화가 있었겠죠? 바로 '다독'의 등장이에요. 책 생산량이 늘고, 여성들이 독자로 유입되고,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하는 '변화' 덕에 분산형 독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네요.

이와 같이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독서 방식**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화제를 다시 한 번 친절하게 정리해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순 서술 지문은 변화 양상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하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5. ②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91% | 4% | 1% | 1% |

- 음.. 지문을 읽었다면 틀리기 힘들죠. 좀 더 정확하게는 '변화 양상'에 주목했으면 틀리기 어렵습니다. '음독→묵독→다독→검색형 독서'라는 변화, '낭독-듣기식 읽기→분석적 읽기→선택적 읽기→정보 처리적 읽기'라는 변화를 생각하면서 읽었다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6. ②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10% | 77% | 3% | 6% | 4% |

① 분산형 독서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이 '분산형 독서'의 정의는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필독서'니까 고전은 반드시 읽어야했겠죠.

② 저런 '읽기가 끊기는 현상'을 통해 '띄어쓰기, 문장 부호'가 발달한 시기는? 그렇죠 12세기 '묵독'의 시대입니다. 낭독은 12세기 이전의 시대에서 행해졌던 것이니, 애가 답이네요.

③~⑤ 모두 '변화 양상'에 주목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무엇이 변했는지 생각하자!

7.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73% | 7% | 13% | 3% | 4% |

- [A]의 독서 방식, 즉 '검색형 독서'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정의한 번 상기시켜주고,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목독 시대로 회귀한다구요? 목독은 소리내지 않고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그런데 검색형 독서의 시대에는 정보 처리를 하면서 '필요한 것만'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고, 동영상 텍스트 같은 건 '소리'가 생명이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소리네요.

② 텍스트를 잘라내고 붙이고 하면 여러 텍스트가 붙는 것이니, 그 텍스트들의 주인이 다 다를 것이고 그럼 원전의 개념의 모호해 지겠네요. 읽기 위해 잘라 붙이는 행위는 새로운 책을 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읽기와 쓰기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도 하구요.

③ 2번과 비슷한 맥락인데, 막 붙이다보면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도 당연히 커지겠죠.

④ 전자 문서가 되면 검색하기도, 활용하기도 쉬워지는 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⑤ 정보 처리형 독서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8~10] ☆☆☆

우리는 생활에서 각종 유해 가스에 노출될 수 있다. 인간은 후각이나 호흡 기관을 통해 위험 가스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그 종류를 감각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우며, 미세한 농도의 감지는 더욱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스의 종류나 농도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가스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유해 '가스'에 대한 지문입니다. 인간은 가스의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종류나 미세한 감지는 어렵다고 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결을 해야겠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고성능 가스 센서'입니다. 이제 이런 지문은 너무 뻔합니다. 아마 이 가스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죠? 이 생각 하면서 읽어봅시다.

가스 센서란 특정 가스를 감지하여 그것을 적당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각종 가스 센서 가운데 산화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한 저항형 센서는 감지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으며 휴대용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센서 장치에서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 조건 하에서는 센서의 출력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다.

일단 이 지문의 주인공인 '가스 센서'가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가스 감지'가 주된 역할인데, 이 중에서 '저항형 센서'라는 게 여러 장점 덕에 널리 사용된다고 해요. 화제가 '가스 센서 → 저항형 센서'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저항형 센서의 장점 중 하나인 '안정성이 높다'까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긴 어려워도, 이 정의를 체크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주셔야겠죠?

저항형 가스 센서는 두께가 수백 나노미터( $10^{-9}m$ )에 수 마이크로미터( $10^{-6}m$ )인 산화물 반도체 물질이 두 전극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①가스가 센서에 다다르면 ②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흡착되는 가스의 양이 늘어나다가 ③흡착된 가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定常狀態)에 도달하여 일정한 저항값을 나타내게 된다.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동안 이산화질소와 같은 산화 가스는 산화물 반

도체로부터 전자를 받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일산화탄소와 같은 환원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여 산화물 반도체의 저항값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저항값 변화로부터 가스를 감지하고 농도를 산출하는 것이 센서의 작동 원리이다.

본격적으로 '저항형 가스 센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천히 체크하고 있는데... 순서의 느낌이 있네요! 바로 과정 체크하면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정인 '정상 상태'의 정의와 함께 지금 '저항형 가스 센서'의 과정을 체크했다는 생각까지 해주셔야겠죠? 그 밑에는 '산화 가스'와 '환원 가스'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의를 체크하고, '저항값의 변화'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이 가스들이 모두 '저항형 가스 센서'의 작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베스트겠죠? 결국 저항형 가스 센서는 정상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저항값을 이용해 가스를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체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항형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응답 감도, 응답 시간, 회복 시간이다. 응답 감도는 특정 가스가 존재할 때 가스 센서의 저항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가에 대한 정도이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 저항값( $R_s$ )과 특정 가스 없이 공기 중에서 측정된 저항값( $R_{air}$ )으로부터 도출된다. 이는  $R_s$ 와  $R_{air}$ 의 차이를  $R_{air}$ 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 값이 클수록 가스 센서는 감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센서가 특정 가스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반응하느냐의 척도인 **응답 시간**은 **응답 감도 값의 50% 혹은 90% 값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한편, 센서는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정상 상태로 흡착돼 있는 가스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탈착시켜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따라서 흡착된 가스가 공기 중에서 탈착되는 데 필요한 시간인 **회복 시간** 역시 가스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  $\frac{R_s - R_{air}}{R_{air}} \times 100(\%) \uparrow \rightarrow$  응답 감도 good

마지막엔 저항형 가스 센서를 평가하는 요소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뜬금없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작동 원리가 궁금했는데, 갑자기 평가 요소라뇨! 이렇게 뜬금없는 정보가 나오더라도

지금 뭘 읽고 있는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읽을 '응답 감도', '응답 시간', '회복 시간' 모두 '저항형 가스 센서의 평가 요소'입니다!

그 뒤엔 쉽습니다. 현란한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정의만 제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비례/증감 관계 하나도 잡아주시면 좋구요. 어차피 이거 완벽하게 기억하긴 힘들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돌아올 준비만 합시다. 우리는 마지막 문단에서 뭘 읽고 있는지 생각했기 때문에, '응답 감도', '응답 시간', '회복 시간' 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마지막 문단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  |  |  |  |
|-------------|--|--|--|--|--|
|             |  |  |  |  |  |

8.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8% | 5% | 6% | 8% | 33% |

① '저항형 가스 센서'를 구성하고 있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바로 과정 체크할 준비부터 하셔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체크한 3단계의 과정을 봐도 '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틀렸다고 하려는 찰나, 이 과정 속에 포함된 또 다른 정보가 생각납니다. 바로 '산화 가스'와 '환원 가스'죠! 이들이 정상 상태까지 가는 동안 어떤 역할을 했기에, 저항값에 변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센서가 가스를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니, '산화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고, '환원 가스'는 산화물 반도체 물질에 전자를 주고 있습니다. 애가 정답이네요. 3문단에서 결국 '저항형 가스 센서의 작동 과정'을 읽었다는 걸 인식했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② 이게 가능했다면 가스 센서가 필요 없겠죠. 일종의 what에 해당하는 부분을 묻는 선지네요.

③ '회복 시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문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스 센서는 최대한 빠르게 가스를 탈착시켜야 한다고 했고, '회복 시간'은 탈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회복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가스 센서겠죠?

④ 역시 '산화물 반도체 물질', '흡착되는 가스' 등을 보고 3문단의 과정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③번 과정에서 '정상 상태'에 이르면 흡착된 가스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간에 따라 계속 가스의 양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⑤ 저항형 가스 센서가 가스를 감지하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저항값 변화 인식'이라는 걸 미리 정리했는데, '탈착 전후'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기까진 기억 못할테니 바로 3문단의 과정으로 돌아가야겠죠? (왜 3문단으로 가야 하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확인해보니, 정상 상태로 가는 동안에 가스는 '흡착'되기만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문에서 그렇다고 해요. 그럼 '탈착 전후'의 저항값 변화로 가스를 감지한다는 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이 문제의 정답률을 보시면, 학생들이 과정을 체크하는 것에 참서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의 느낌이 있으면 확실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9.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 | 7% | 10% | 8% | 71% |

- ㉠에 해당하는 예를 고르라고 합니다. ㉠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갑시다. '높은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 조건 하에는 출력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동일 조건 하에서 반복 측정, 결과 일정'이 핵심이네요. 이거 찾으러 가 봅시다. 이렇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정해두고 선지를 판단해야 빨라요!

- ① 마..음의... 안정이요...?? 너무 뜬금없네요.
- ② 안정적인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일 조건 하에서 반복 측정, 결과 일정'!
- ③ 맞바람이라는 '동일 조건' 하에서 항공기가 움직이는 정도를 측정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른 '반복 측정'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요동치다가 안정되었다는 '결과의 변화'가 생겼죠?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 ④ 이번엔 '반복 측정, 결과 일정'은 만족했지만, '동일 조건 하에서'를 만족하지 못하네요. 무엇을 찾아야 할지 미리 정리해두니 정

말 편하죠?

⑤ 아침에 운동장 열 바뀌라는 '동일 조건'에서 매일 '반복 측정'했더니 '맥박'이라는 결과가 동일하죠? 우리가 찾던 그 내용 그대로네요.

10.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5% | 23% | 55% | 10% | 7% |

- 발문도 길고, <보기>에 그래프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A와 B는 모두 '산화물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래프의 x축, y축을 확인해보니 '시간에 따른 저항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게 곧 3문단에 나온 '저항형 가스 센서의 작동 과정'에 해당하는 걸 생각해주시면 베스트겠습니다.

① 실험에 사용된 것이 '산화 가스'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산화 가스'는 저항값을 '증가'시키는 놈이었어요. A와 B 모두 특정 가스를 만난 뒤 저항값이 증가하고 있으니, 산화 가스를 활용한 것이 맞겠습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 생각하기. 기본이죠?

② '응답 감도'를 묻고 있습니다. 애는 '정상 상태 저항값 - 공기 중 저항값'을 '공기 중 저항값'으로 나눈 값이었어요. 그런데 A와 B 모두 정상 상태, 즉 저항값이 일정할 때의 저항값과 공기 중에서의 저항값이 같죠? 그럼 '응답 감도'도 당연히 같겠네요. '백분율'이라는 말만 보고, t1 이후에서 A와 B의 증가율이 다르니 이 백분율이 같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23%나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선지에서 묻고 있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잡는 것. 문제풀이의 기본이예요.

③ 이번엔 '응답 시간'을 묻고 있네요. 애의 정의는 '응답 감도 값의 50%나 9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2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A와 B의 응답 감도 값은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t1 이후 A와 B의 저항값의 증가율이 다르네요! 그럼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A가 응답 감도 값의 50%든, 90%든 먼저 도달하겠어요. 응답 감도는 같은데, A가 먼저 정상 상태에 다다르고 있으니까요! 약간의 수학적 인센스도 필요했지만, 결국 선지에서 묻고 있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④ 특정 가스가 흡착하기 전, 그러니까 t1 이전에서는 A와 B가 저항값이 같죠? 그래프의 x축, y축 잡고 읽을 줄 아는지 묻는 선지네요.

⑤ 네 그러네요... 역시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 쉽지만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늘 하던 대로, 선지에서 묻는 것을 생각하는 문제풀이의 기본 태도가 갖춰져 있었다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11~15] ☆☆☆☆

이번에도 <보기> 먼저 볼까요? 14번 문제에 (나)에 대한 <보기>가 하나 있네요.

—〈보 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확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확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우포늪의 아름다움.. 네 좋은 말이네요. 15번의 <보기>는 그냥 수필의 특징에 해당하니 굳이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가 봅시다.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의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짙짙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지방의 자리에서 얼

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의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고 위에서 밑줄 친 반응들만 체크하다가 제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네요. 6.25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시네요. 자세한 해석 같은 건 여차피 선지에서 해줄 테니 다음 시로 넘어가 봅시다.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확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빈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쩍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뿔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펽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확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확새」 -

음.. 역시 전반적으로 뭘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그냥 <보기>를 통해 볼 때 '토펽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봄'이라는 시간에 소리꾼의 목소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딱 이 정도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이 이상의 해석은 선지에서 해준단니까요!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질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리고 간 형겼인 듯 봉우리에 가볍게 비긴 백옥보다도 흰 옅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낀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낀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엮드린 먼지 낀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찬가지로** **가진다**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 김기림, 「주을온천행」 -

수필은 그냥 산문시처럼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산문시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반적인 주제'만 잡으시고 헛갈리는 부분은 돌아오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자연이 이쁘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11.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75% | 4% | 8% | 9% | 4% |

① '주제 의식'이 있네요! 공통점을 묻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거시적인 선지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공간(휴전선, 우포늪, 오심암이 있는 곳)의 의미도 나온다고 할 수 있으니 애가 답이네요.

② (나)와 (다)는 모르겠는데 (가)는 전쟁 상황이에요. (나)와 (다)에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는 부분도 딱히 보이지 않구요.

③ 역사적 상황 직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 모두 (가)에는 어울리는데 (나)(다)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④ (나), (다)는 각각 소리꾼의 소리 및 우포늪이라는 자연, 자연을 예찬한다고 허용할 수 있는데 (가)에 예찬이라는 반응은 나오질 않았네요.

⑤ 너무 총체적으로 개소리네요.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반응이 언제 나왔었나요.

12.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13% | 72% | 7% | 5% |

① (가) 시에는 설의적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죠? '안타까움은 (가) 시의 대표적인 반응이구요.

② 왁새 울음이 꽃불을 질러놓고 있으니 청각의 시각화가 허용이 되네요. 이런 건 하나하나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③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면 당연히 체크가 됐을 거고 (상황이니까) 시선의 이동이 있었다면 장면이 계속 변화하겠죠. 시간 흐름 없었고, 장면 변화보다는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었으니 애가 개소리네요.

④ (가)는 첫 연과 마지막 연에 똑같은 구조가 쓰였고, (나)는 소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 의식 강조'는 고민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맞는 거예요.

⑤ 자연물이 나오기만 하면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인데, (왜 그런지는 알겠죠? '시적 정서'는 화자의 반응에 해당하니까 무조건 있을 거 아니예요.) 꽃, 약새 등의 자연물에게 화자의 반응을 투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13. ②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7% | 63% | 8% | 7% | 15% |

① '천동 같은 화산'이 신뢰를 잃은 상황과 불안한 현실이라는 건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데, '검은 절경'이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이라는 건 (다) 작품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개소리죠?

②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 곳'이라는 '근거'를 통해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허용할 수 있고, '높은 하늘 아래'는 티끌을 품은 듯한 게 없는, 즉 흠결 없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별거 아니예요. 시를 읽고, 해석을 보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③ '삶의 의지'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반응이고, (다)의 화자가 정든 곳에서 떠났다는 근거도 없으니 개소리네요.

④ '징그러운 바람'이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모진 상황인 건 허용이 되는데, '미친 바람'은 먼지를 품고 있는데 소중한다고 보기는 힘들죠.

⑤ '순응', '회의'라는 반응은 나온 적이 없으니 허용하기 힘듭니다. 상황과 반응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 찾기. 그리고 그것을 통한 허용 가능성 평가하기. 이게 전부예요!

14.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5% | 5% | 15% | 47% | 28% |

① 소리꾼의 소리가 오늘은 약새의 울음 소리가 되어 우포늪 둔치의 꽃불을 지른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② '달빛 같은 슬픔'이라는 '근거'를 통해 비애를 허용할 수 있네요.

③ 정서, 즉 반응이야 당연히 드러나는 거고, 소리꾼이 절창을 우포늪에서 발견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허용이 돼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에서 고민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정서를 드러내는 건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요.

④ 이게 좀 어려웠을 텐데, 별거 아닙니다. 토평마을이라는 '현실적 공간'이 나온 건 알겠는데, '상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헛갈렸어요. 하지만 '판소리의 한 유파를 넘어가고 있는 약새들의 모습'에서, 충분히 '상상'을 허용할 수 있겠네요. 판소리를 넘어가는 약새들은 확실히 현실에서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니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지문의 근거를 토대로 허용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⑤ 4번 선지와 다르게, 이걸 대비로 보면 안 되는 '근거'가 있네요. 완창 한 판 잘 끝냈다는 소리꾼이 선회하는 약새와 함께 나오고 있고, 둘이 다르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대비를 허용하나요? 문학은 이렇게 뇌피셜이 아닌 지문의 표면적인 내용으로 조지는 겁니다. 작품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이 문제의 정답률은 얼마나 학생들이 문학을 잘못 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15.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6% | 28% | 16% | 47% | 3% |

①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누런 단풍, 푸른 하늘빛 등의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네요. 쫄지 말고 덤비세요. 다 내용일치예요.

② '장하지도 아니한'이라는 표현에서 비판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③ 겸손, 순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고 있으니 새로운 의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보였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딱히 틀린 건 없네요.

⑤ 네 먼지 낀 옷에서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 반성적 태도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주저 없이 <보기>나 지문으로 돌아가서 ‘상세한 내용일치’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딱히 대단한 정보가 없네요. 선지 하나하나 ‘지문’에서 확인해 봅시다.

- ① 이견 처음 해설과 똑같고..
- ② 정말로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했는지 봅시다. 4문단 ~ 5문단 보니 대비하고 있네요!
- ③ 정말로 오심암의 경치에서 ‘겸손한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냈나요? 네 그러네요. 그럼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
- ④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만큼 작아 보인다고 했었나요? ‘티끌’을 지문에서 찾아 보니..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 것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연에 티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깨끗하다~라는 거지 자연이 티끌처럼 작다는 건 완전 헛소리 of 헛소리네요. 선지만 봤을 때는 되게 그럴 듯 해 보였는데, 지문과의 ‘상세한 내용일치’를 따져 보니 얘가 답이었습시다. 할 수 있겠죠?

⑤ 역시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게 맞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대충 감 오시죠? 만약 2~4번 선지 사이의 ‘애매함’을 따지며 답을 골랐다면 정말 반성하세요. 예를 들어 “장하지도 아니한’이 비판까지는 아닌가..?” 혹은 “겸손, 순결이면 대충 비슷하니까 새로운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나..?”와 같은 생각들이요! 애매함의 정도가 아닌, ‘팩트’에 기반한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풀지 않고 한 큐에 처리하셨더라도 ‘사고 과정’ 자체는 복습을 해 보세요.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16~18] ☆☆☆  
문항은 <보기>부터! 잊지 않았죠?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보 기>—

「도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도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우리 민족의 수난&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망이 있다고 합니다. 큰 힌트였어요. 이 상태로 지문 읽어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으니께요. 머 내가 횡방을 놓차고 찾아온 것도 아니겼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진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찰라서 말하겼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든 빈손으로 우찌 하겼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문 꿩 목고 알 목는 거 아니겼소.”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겼소. 하지마는 두고 보문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리요? 지내 놓고 보문 알 기니께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그랬을 양이든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뺨어묵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날을 다가야겠다.’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잠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선 인적이 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게 울리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먼저 인물들을 설명해 줍니다. <보기>에서도 인물들끼리 다양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먼저 인물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조준구’와 ‘홍 씨’가 ‘삼수’(…)라는 인물을 이용해서 나쁜 짓(최 참판가의 재산 가로채기)하고, ‘서희’는 피해를 보았으며 ‘윤보’는 의병 자금을 위해 ‘최 참판가’를 습격하려 합니다. 대충 나눠지죠? 윤보와 서희가 약한 편?이고 나머지 인물은 모두 다른 사람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읽어 봅시다. 이처럼 줄거리에서 많은 정보를 주는 경우 다 받아 먹고 가셔야 해요.

사투리라서 알아듣기 쉽지는 않지만 삼수가 윤보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조가’(아마 조준구겠죠?)를 먼저 치면 좋다! 하면서 꼬시고 있는데, 윤보는 ‘제정신이 아니구마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밑줄 친 이유는 인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윤보는 삼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보면 아마 삼수가 못 미덥기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해내는 것이구요. 아무튼 그러자 삼수는 괜히 큰소리도 쳐보고, 안절부절하며 언덕을 내려갑니다.

[A] 부분에서는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자정’의 ‘배경’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둠다는 시간적 특성, 그리고 그 시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배경 묘사가 의미하는 ‘조심스레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인식해주시면 됩니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윤보가 최 참판가를 털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 아마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이겠죠. 여기까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소설의 4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큰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홍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제 죽여 보아라! 화적 놈 불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뿜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뻗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외락외락 흔들어난다. 서희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흥 씨 손에 옷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흙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나?”

나직한 음성이다. 흥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나?”

‘중략 부분 줄거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꼼꼼하게 읽어 줘야겠죠? 줄거리를 보니, 윤보의 습격은 실패로 돌아간 듯합니다. 삼수가 도왔나봐요. 아무튼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시간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겠죠? 날이 밝자 흥 씨가 서희를 구박합니다. 뺨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근데 습격은 윤보가 했는데 왜 흥 씨는 서희한테 뭐라고 하죠? 아아 서희와 흥 씨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심리, 행동의 근거를 자동으로 체크하면서 읽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봉순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울고 불고 난리납니다. 애기씨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시녀나 뭐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서희는 죽으려고 했다가, ‘아니지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다시 흥 씨를 몰아붙입니다.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보아하니 흥 씨는 서희가 자신을 습격한 일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죠? 그렇죠. 자기가 재산 빼고 그랬으니 서희와 좋은 관계일 리가 없고, 이에 찢리니까 서희부터 의심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심리, 행동의 근

거'를 토대로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울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읊내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흥씨는 겨우 본채로 돌아 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찌 …… 으호호호.”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오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 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캬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 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바라!”  
 “나, 나오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서희가 하면서 뭐 대충 마무리됩니다. ‘헌병’이 왔거든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헌병이 먼저 잡아간 건 삼수입니다. 왜 일까요? 뭐 조준구에게 통수를 맞은 건지 아니면 조준구가 정말 착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헌병에게 폭도의 앞잡이라며 삼수를 넘기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내용만 이해해주시면 돼요.

지문 내용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던 대로 포인트들에 맞춰서 지문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사실 아예 이해 못할 지문은 아닐 겁니다. 능수능래까지 연습 열심히 해서 소설에서 실점하는 불상사는 없도록 합시다. 아니, 문학 전체에서 틀리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다 맞고 비문학에서 승부볼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16.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5% | 5% | 19% | 9% | 63% |

① ‘덩어리 같은 침묵’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고, 침묵이라는 표현, 즉 조용하다는 것을 통해 은밀한 행동 양상을 허용할 수 있네요.

② 와락와락! 엄청 격렬하죠?

③ [A] 부분은 최 참판가네를 치기 전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B]에서는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로 서희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내면 됩니다. 여기서는 ‘죽을 생각’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④ [A]에서는 ‘모여들었다’를 기점으로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고, 동시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긴장감을 준다고 할 수 있죠? 반면 [B]에서는 현재형 진술만 나타나고 있네요.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면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형 → 현재의 모습 생생하게 전달! 충분히 허용할 수 있죠?) [B]에는 갈등도 나타나니 완벽하게 맞는 선지네요. 이처럼 시제는 의외로 자주 묻는 요소입니다. 지문 읽으면서부터 신경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⑤ [A]에서는 자정이라는 시간 표현을 통해서 분위기(어둡고 은밀한 분위기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한편 [B]에서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는 나타나는데, (방 → 연못) 그 변화를 통해 대립의 원인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변화하고 끝이지, 그 변화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문 내용을 이해하면, 즉 대립의 원인이 윤보네의 흥 씨네 (정확히는 최 참판가네) 습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바로 답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17.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8% | 4% | 72% | 11% | 6% |

① 밑줄 문제는 밑줄 근처를 꼭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근처(위쪽)를 보면 ‘큰일을 하자 카은 ~ 조가부터 치고’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굉’과 ‘알’은 ‘큰일’과 ‘조가를 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보의 계획을 숨기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가를 쳐서

재물 축적하고, 그것을 토대로 큰일하자! 이거죠.

② 역시 근처를 보면,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의 의도가 ‘염탐을 하러 올 거라면 소문을 내겠지, 너한테 찾아왔겠냐?’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지문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부분이 협박이 아닌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야 해요!

③ ㉡의 근처를 봅시다. ㉡은 중략 부분 줄거리의 ‘날이 밝았다.’ 이후 상황입니다. 즉 ㉡은 흥 씨네 집이 습격을 당한 이후의 발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왔으니 죽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흥 씨는 서희가 주축이 된 무리가 자신을 습격했다고 생각하고, ‘화적 놈’이라는 그 무리를 부를 필요 없다! 라고 한 것이니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고 부른 것도 허용이 되겠네요. 역시 내용이해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문항이었습니다.

④ ㉢의 앞뒤를 보겠습니다. 서희는 흥 씨를 똑바로 보면서 ‘사람 영악한 거 무섭다!’라고 했고, 흥 씨는 ‘그게 뭐가 무서워! 그래서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서희가 자신이 영악해지면 무섭다고 경고하고, 흥 씨가 그에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흥 씨가 뻔뻔하고 영악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흥 씨가 ‘뭐가 무서워!’라는 반응을 보였을 리가 없으니 흥 씨가 영악하다고 하는 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⑤ 참 알곳은 선지입니다. 일단 조준구가 정말로 삼수가 자신을 친 것이라고 착각했다고 치면, 선지 자체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조준구 입장에선 자신을 습격한 삼수의 행동에 분노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습격했던 삼수’는 사실과 다른 표현이죠? ‘삼수가 자신을 습격했다고 생각하여’라고 하면 허용할 여지가 생기겠지만, ‘습격했던 삼수’는 실제 내용과 다르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분석하셔야 할 선지입니다. 허용의 기준은 항상 지문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18.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4% | 83% | 3% | 6% |

① ‘제정신이 아니구마는’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 지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② 이것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인물들의 관계를

이해하며 읽었다면 바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③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구요? 봉순이는 서희가 죽으려고 하자 영영 울부짖기도 하고 하는, 서희를 잘 따르는 인물입니다. 신분 질서가 흔들린다는 것도 헛소리고, 여러모로 허용할 수 없는 개소리네요.

④ 네 이것도 서희와 흥 씨의 관계라는 인물 관계를 이해했다면 지을 수 있겠네요. <보기>에서부터 인물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그것을 연결 지으면서 읽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⑤ 삼수는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도 했고, 조준구를 도와 윤보의 침입을 저지하기도 했고, 조준구에게 통수를 맞기도 했습니다. 역시 인물 관계를 파악했다면 쉽게 지을 수 있는 선지네요.

소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용이해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허용 가능성 평가’라는 문학의 대원칙은 계속 지켜주셔야 하구요!

〈보 기〉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보기〉부터 봤더니, (다)에 대한 설명이네요. 귀양살이를 하며 쓴 작품인가 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광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가)부터 봅시다. ‘어제’ 화자는 나그네집에서 밤을 새다가, ‘오늘’ 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정주 광산이라는 고향은 있지만, 화자는 갈 곳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네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화자는 갈 곳이 없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나)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술밭에 빠꾸기 소리  
잔술밭에 덜거리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

애도 뭐 별거 없네요.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 산과 벌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언제를 의미하는 건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산과 벌에 있다. 어떻게? ‘나 홀로!’ 이 정도로 상황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다)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렐시고  
두어라 우로(雨露)곤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이신의, 「단가육장」 -

애는 아까 <보기>를 보면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파악하고 있었죠? 귀양 가서 장부의 할 일도 생각하고, 한숨 쉬고, 시름을 표현하고, 자연 좋다고 하고.. 하는 전형적인 유배가사네요. '설월'을 보면서 '음 겨울이군~' 정도 생각만 해주시면 더 이상 언어갈 것은 없어 보입니다!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19.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90% | 4% | 3% | 2% | 1% |

- 공통점 문제네요. 역시 답의 후보부터 골라 봅시다.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는 1번 선지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1번 선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①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하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자연물과의 관계가 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가)는 기러기, (나)는 산과 벌, (다)는 제비, 명월 등의 자연물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네요. 쉽게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 다른 선지도 확인해 볼까요?

② 시각의 대립?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오거나 한 적은 없죠. 부정적 현실 인식의 경우에는 (가)와 (나)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보통 홀로 있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좋다 싫다 확실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의 경우에는 <2장>에서 부정적 현실 인식이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부근'이 치열한 당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아 어떻게 아냐구요? 고전시가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레 생기는 감입니다.

③ (나)에서는 산이 들썩하고 하는 것을 통해 역동적 이미지와 생동감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가)와 (다)에서는 좀 찾기 힘들죠? 굳이 따지자면 (다)의 '제비 비비' 등도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④ (다)에 나오는 적객의 '회포'를 통해서도 억지로라도 허용할 수 있겠지만, (가)와 (나)에서는 회상 자체가 없죠? 만약 '과거'라는 시간적 배경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잖아요.

⑤ 명암의 대비는 그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네요.

해설을 보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2~5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진짜 디테일하고 미시적입니다. 강사분들마다 해설이 엄청나게 갈리기도 하구요. 한편 1번 선지는 아주 쉽게, 잘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답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건, 이런 공통점을 묻는 개념어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 선지가 매우 '거시적'인 부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넓은 범위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결국 대부분 정답으로 제시되는 건 1번 선지처럼 거시적인 내용이에요.

20.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5% | 2% | 10% | 80% | 3% |

- '외로움'이라는 반응을 심화하는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봅시다.

① 오늘도 길을 가야하지만, 화자는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② 오라는 곳이 없어요! 역시 외로움을 심화한다고 할 수 있겠죠.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하니,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럴듯하면 맞다고 하는 겁니다.

④ 진짜 헛갈리는 선지긴 합니다. 치밀하게 생각해야 해요. 화자

는 '기러기'를 부러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자신과 달리 기러기는 지 갈 길 잘 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러기와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이 생기나요? 기러기와 떨어져 있다고 화자가 더 외로울 이유는 없잖아요. 기러기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외로움을 주는 것이지, 기러기와 떨어져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선지를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해요. 일종의 '문장 단위의 상세한 내용일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⑤ 갈 곳 없이 있으면 외롭다고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21.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 | 5% | 2% | 85% | 4% |

① 별배채가 머물러 가는 게 도대체 무슨 계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계절이든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가을을 의미할 겁니다.

② '소리=청각적 이미지'. 더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죠?

③ '빠꾸기, 덜거기, 물닭, 갈새' 등 청각적 체험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네요.

④ 산과 벌은 모두 홀로 있는 화자를 둘러싸고 들썩하고 있는, 똑같은 속성을 가진 대상들입니다. 상반된 의미는 너무 개소리네요.

⑤ 산과 벌 소리 속에서 '적막강산', 즉 외로움의 감정과 관련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험의 의미를 뭐 외로움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다구요? 그럼 맞다고 해야죠. '적막하다'의 의미를 몰랐던 건 아니죠?

22.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10% | 3% | 16% | 11% | 60% |

① (가)의 제목은 '길'입니다. 화자가 길을 걷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니 제재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제목은 '적막강산'인데, (나)의 주제 의식이 '외로움'에 대한 표현이라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제 의식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목이 제재 혹은 주제 의식을 나타낸다는 건 틀리기 힘든 당연한 말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② '요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x 소리 속에 나 홀로'. 설마 '리듬감'에서 고민한 건 아니죠?

③ 정주 곽산은 화자의 고향이고, 정주 동림은 화자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맞는 선지죠. 정주 동림이 화자가 현재 있는 곳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길'을 지나는 도중에 산과 벌을 지나는 것이니 최소한 화자가 경험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④ 갈린 '길'이니 공간적 성격, '하룻' + '길'이니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죠. 이걸 왜 고르신 거죠?

⑤ 일단 (가)가 의문과 확인을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어디로 갈까'라고 물어본 다음에 '나는 못 가오'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나)도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 '홀로'처럼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지의 표현??? 이 시의 화자들이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만한 여지가 있나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지네요. 그냥 갈 곳 없다, 외롭다고 했지 '의지'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이처럼 '의지'는 자주 출제되지만 허용하기 쉽지 않은, 아주 강력한 반응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23. ②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10% | 78% | 2% | 2% | 8% |

- 묻는 것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갑시다. '우려 속 기대감'입니다. 찾아봅시다.

① 그냥 '내가 할 일이 뭘까?'하는 내용입니다. 기대감을 찾아보기 힘들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면 고전시가에 대한 해석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고전시가 정리 꼭 하도록 합시다.

② 남산에 많던 술이 없고, 부근도 날래고.. 이런 상황 속(우려될 만한 상황)에서도 우로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한다'라며 기대감을 슬쩍 드러내고 있네요. 역시 이게 안 되면 고전시가 공부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③ '기대감'을 찾아야 합니다! 한숨만 쉬면 안 되는 거예요.

④ '기대감'을 찾아야 합니다! 시름만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⑤ ‘기대감’을 찾아야 합니다! 반가움만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24. ③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선택률 | 3% | 8% | 46% | 31% | 12% |

- (나)의 ㉞와 비슷한 관계를 (다)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 (나)의 ㉞의 관계부터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들쭉하는 벌에 있지만 나는 홀로 있다고 합니다. 뭔가 단절된 느낌, 떨어진 느낌을 찾으면 되겠네요.

① 효계충신을 강조하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으니, 딱히 단절된 느낌이 있다고는 못하겠네요.

② ‘술이 어디로 갔냐!’고 하면서도 언젠가 다시 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절된 느낌을 허용하기 힘들죠?

③ 제비가 나는 것을 보고 한숨 겨워 합니다! 왜? 자기는 회포만 내뱉고 있는데 날아다니는 게 부러운 거죠! 그럼 단절된 느낌을 허용할 수 있겠네요. 23~24번 문제는 고전시가를 읽을 줄 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고전시가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꼭 보충하도록 합시다.

④ 설마 이걸 4장으로 보신 분들은 없죠? 선지 꼼꼼하게 읽읍시다 ㅎㅎ 4장이라면 답이라고 볼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평가원이 굳이 4장을 묻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대답하고 싶네요. 애매하니까 안 물어본 것이겠죠! 5장인 것만 알았다면 ‘명월’을 반가워하는 모습에서 바로 거르실 수 있겠죠? 단절된 느낌을 찾아야 해요!

⑤ 매화를 잡고 그 향기를 맡고 있고.. 아무리 봐도 단절된 느낌은 아니네요.

## Day 2

[1~4] ☆☆☆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책을 보기 위해서는 책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상에서 방출되거나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이다.**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본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물체를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나올 텐데, 그것은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이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창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하면서 읽어 보시다.

광양자는 대상에 부딪쳐 튕겨 나올 때 대상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왜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을까? <그것은 빛이 가하는 충격이 책에 의미 있는 운동을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에 플래시를 터뜨려도 야구공의 운동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책이나 야구공에 광양자가 충돌할 때에도 **교란**이 생기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광양자는 튕겨 나올 때 대상에 '충격'을 주는데, 이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지각하는 우리는 그 '충격'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앞 문단의 내용(보는 것=광양자 지각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정보가 **화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신다면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물음, 즉 '충격을 감지할 수 없는 이유'가 왜 나왔는지 말이죠!

아무튼 그 이유는 충격이 너무 작기 때문이래요. 확실하게 이해하라고 '야구공, 책' 같은 예시도 들어주고 있네요. 핵심은 '광양자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지문의 화제는 분명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였습니다.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이 원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물음을 끊임없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모든 문단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하려면 되도록 그 대상을

**교란하지 않아야 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교란을 줄여 나갔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갑자기 '물리량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 길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문단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이 물리량 측정을 위해서는 대상을 '교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교란'이라는 말이 반가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던 '광양자가 대상에 주는 충격'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2문단의 '충격' 이야기는 3문단에서 '물리량 측정'이라는 이야기로 이어가기 위해 등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죠?

아무튼 이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실험을 해서 교란을 줄여 나갔는데, 과학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 한계가 있는지, 혹시나 해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야겠죠?

'전자를 보는 것'은 '책을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알려면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양이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되도록 전자에 **교란**을 적게 일으키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해야 한다.

'전자를 보는 것'과 '책을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해주려나 봤더니, 말해주지 않네요! 일단 아래의 내용을 보니, '입자'의 운동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네요. 그리고 이를 위해선 되도록 교란을 적게 일으켜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량'의 정의는 숨쉬듯이 잡고 계실 거고, 설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겠죠?

우리는 첫 문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제시를 해줬고, 2문단에 나온 '야구공, 책'이라는 예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죠.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교란'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책'에 생기는 교란의 효과는 무시할 만큼 작아서 인지를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전자'를 볼 때는 굳이 이 '교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교란'이 '전자의 운동 상태 측정'에는 아주 중요하다.

는 의미겠죠? 문제에서 묻기도 하지만, 만약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이 생각을 하며 2~4문단을 연결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보는 왜 나왔는가!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아무튼, 그래서 교란을 적게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에서 분명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으니 뭔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읽어봅시다.

**이상적 상황에서** 전자를 '보기' 위해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시킨 후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관측한다고 해 보자.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관측 순간의 전자의 위치, 즉 광양자와 전자의 충돌 위치의 측정은 부정확해진다.>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빛을 쏘아야 한다.**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 곧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쏘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의 부정확성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이처럼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이다.

-> 광양자 운동량 ↓ → 전자 운동량 교란 ↓ → 운동량 측정 정확도 ↑, 위치 측정 정확도 ↓  
-> 광양자 파장 ↓ (운동량 ↑) → 운동량 측정 정확도 ↓

전자를 '보기' 위해, 즉 '운동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광양자를 관측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광양자의 운동량이 작아야 하는데, 이러면 위치 측정이 부정확해진다고 해요. 그렇다고 위치 측정을 위해 파장이 짧은 빛, 즉 운동량이 큰 빛을 쏘면 운동량 측정이 부정확해진다고 하네요. 이를 비례/증감 관계로 제시하고 있으면 저처럼 메모해야겠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 본인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광양자 운동량 ↓ (파장 ↑) → 교란 ↓ → 운동량 정확도 ↑, 위치 정확도 ↓" 이런 식으로 메모했어요.

어쨌든 이 비례/증감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던 화제, '불확정성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결국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의 물리량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네요. 지문이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교란'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비교 포인트 (야구

공, 책 ↔ 전자) 및 전자의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까지 잡아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읽어내는 건 그리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요! ㅎㅎ

|             |  |  |  |  |  |
|-------------|--|--|--|--|--|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  |  |  |  |
|             |  |  |  |  |  |

1.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5% | 9% | 14% | 8% | 64% |

- ① 광양자가 충돌하면 변하는 운동량의 교란 정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지문의 화제죠?
- ②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낸 것이구요.
- ③ '질량', '운동량', '속도'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량'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다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운동량=질량×속도'니까요!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속도가 커질수록 운동량도 커지겠습니다. '정의' 체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선지네요.
- ④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은 '광양자가 대상에게 주는 충격'이라는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예시였어요. 역시 '사례-원리 연결'이라는 기본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네요.
- ⑤ '운동량 측정'에 대해 묻고 있네요. 관련된 비례/증감 관계를 보니, 일단 광양자의 운동량이 클수록 전자의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광양자의 운동량'과 '전자의 운동량' 중 무엇이 더 커야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네요. 쉽죠?

2.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58% | 7% | 17% | 6% | 12% |

- 우리가 미리 생각했던 정보네요. 답은 알고 있죠? '교란을 무시할 수 없다!' 이거 찾으면, 1번에 그대로 있네요. 설마 전자니까 작아서 3번을 고른 건 아니죠? 지문에서 해야할 생각만 제대로 해주면, 이런 문제는 1초만에 답을 골라낼 수 있겠죠. 정답률만 봐도 얼마나 학생들이 생각없이 지문을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정답률이 이해가 되지 않아야 해요!

3.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 | 8% | 17% | 14% | 57% |

- <보기>부터 정리합니다. 빛을 쏘아서 측정한 '운동량'이 ㉠에 해당하고, 그 '측정 오차 범위'가 ㉡에 해당합니다. ㉢는 '위치'의 '측정 오차 범위'네요. 이걸 확실하게 잡아두어야 합니다. 저 무지막지한 숫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문 내용과 대응시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양자 역학이라는 과목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① 광양자를 쏘면 조금이라도 교란이 생깁니다. ㉡라는 운동량은 당연히 교란 이후 측정된 값이겠죠.

② '질량', '속도'를 ㉡라는 '운동량'과 관계 짓고 있네요. 1번 문제의 3번 선지에서도 했듯이, 이들은 모두 '운동량의 정의'라는 정보로 모였습니다. 당연히 알 수 있겠죠.

③ 같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더라도, '정밀도'에 따라 측정 오차가 커질 수 있다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밀도'는 과학자들이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한계를 봤지만 말이에요. 다시 말해, '파장의 길이'라는 정보가 같더라도 실험 설계, 사용하는 기술 등의 정밀도에 따라 측정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④ 광양자의 운동량이 크면 '운동량 측정'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네요. 정보들의 관계를 물어보면 지문이 아닌 '메모'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광양자의 운동량이 '작을수록' 전자 운동량의 측정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했어요. 그럼 광양자의 운동량이 커지면 전자 운동량의 측정 정확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는 ㉡라는 '오차 범위'의 증가를 낳겠네요. 지문에서 비례/증감 관계를 체크하는 것과 <보기>에서 정보를 미리 정리하는 것 모두 중요하게 작용한 문제였습니다.

⑤ 이번에는 '빛의 파장'과 '위치 측정 오차'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파장이 긴 빛을 사용할수록 전자 위치의 측정 정확도는 떨어진다 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라는 '위치의 측정 오차 범위'는 더 커지겠죠. 메모된 비례/증감 관계를 잘 꺼내쓰기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8% | 8% | 5% | 8% | 41% |

- 오답률이 살벌했던 어휘 문제네요. ㉡는 '측정'입니다. 1번 선지는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5번 선지는 건물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구요. 설마 '어려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재는 건 아니니까 측정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측정'은 꼭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살살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두더지’가 ‘뒤지는 쥐’라는 뜻의 합성어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신기하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큰일나겠죠? 늘 하던 대로 화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더지’가 합성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합성어들을 소개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정도 잡아둔 채로 계속 읽어 봅시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뒤지는 쥐’와 ‘달리는 차’라는 예시를 통해 ‘구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법(언어)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죠? ‘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개념이니까요. 이 당시는 문법 공부 가 그리 강조되던 시절이 아니라서 새로운 정보처럼 처리되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합성어 → 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화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된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낮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역시나 비문학 지문은 똑같습니다. 첫 문단에서 제시한 ‘합성어’라는 화제의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를 만드는 방식을 이용한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네요. 문법적 내용과 관련된 지문이라고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화제의 흐름 계속 잡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읽고 있고, 왜 나왔는지 생각하기!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땀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어둑새벽’, 그리고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스’의 결합 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그냥 끝내면 재미없겠죠? ‘비통사적 합성어’도 다루고 있습니다. 합성어들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소개하는 지문이에요. 문법적 지식이 있는 우리는 지문 독해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가 쏙쏙 들어와야 해요.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러나 ‘두더지’> ‘뒤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뿔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뿔’> ‘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뿔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첫 문단에 등장했던 ‘두더지’는 비통사적 합성어였는데 이제는 원래 합성어였다는 걸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숫돌’ 또한 비슷한 사례이구요. ‘합성어 → 구를 만드는 방식 → 다양한 합성어 → 합성어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 정도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지문이었네요. 여러분들이 ‘체언/용언/관형사형’ 등의 용어가 아주 익숙한 정도로 문법적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지문 해설을 진행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면 채우고 오도록 합시다.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
|             |

5.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4% | 13% | 10% | 70% |

① 두더지는 본래 비통사적 합성어였는데 이제 이것이 합성어임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했죠? 화제의 흐름을 잡고 있었다면 고를 수가 없는 선지네요. 심지어 ‘두더지’라는 핵심적인 예시에 대한 내용이구요.

② 합성어의 유형 구분에 단어 수는 필요치 않습니다. ‘구를 만드는 방식’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③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르면 통사적 합성어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예외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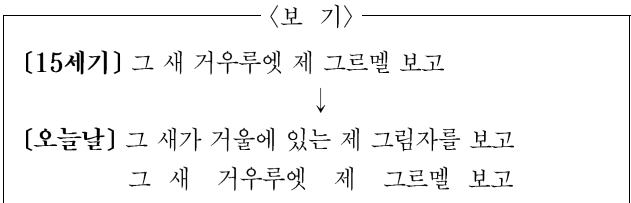
④ ‘숫돌’은 용언 ‘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붙은 형태라고 했습니다. ‘비비다’라는 동사의 품사가 변했다는 말은 없으니 답이 될 수 없네요.

⑤ 결국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정보이기도 한 내용이에요. ‘두더지’와 ‘숫돌’의 예시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해둔 원리죠?

6.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8% | 7% | 41% | 23% | 21% |

-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늘 하던 대로, 발문부터 읽어 봅시다. <보기>와 ㉠을 이용해 탐구해보자고 하네요. ㉠은 ‘귀엣말’의 구성이 ‘귀+에+ㅅ+말’의 구성이고, 이에 따라 비통사적 합성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 15세기와 오늘날을 비교하고 있네요.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가주셔야 해요! (고전문법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5세기의 말이 오늘날에 어떻게 변한 건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주셔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거울에 있는 = 거우루엣’, ‘그림자를 = 그르멜’ 정도네요. 선지 판단해보도록 합시다.

① ‘귀엣말’의 ‘귀엣’은 ‘귀+에+ㅅ’임을 미리 정리해주었습니다. 또한 ‘거우루엣’은 ‘거울에 있는’과 같은 말이라는 것 또한 정리해주었죠? 그럼 ‘거우루엣’ 역시 ‘거우루+에+ㅅ’의 구성이겠네요. ‘거우루에’가 ‘거울에’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에’도 부사격 조사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둘 다 ‘체언+부사격 조사+관형격 조사’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맞는 선지겠습니다.

② 15세기에는 ‘거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이 쓰였을 것 같냐고 묻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정리하면서, ‘거우루엣 그르멜’은 ‘거울에 있는 그림자를’로 해석이 된다는 걸 체크해두었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우니 충분히 쓰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보기>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선지였습니다.

③ 15세기에는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15세기의 ‘거우루엣’의 사례에서 보듯이, 15세기의 ‘엣’은 ‘에 있는’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또한 1번 선지에서 ‘귀엣’과 ‘거우루엣’의 짜임새가 같다는 것도 체크했어요. 그럼 ‘귀엣말’은 ‘거우루엣’과 마찬가지로 ‘귀에 있는 말’처럼 쓸 수 있고, ‘귀에 있는 달콤한 말’처럼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형성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귀엣 달콤한 말’처럼 쓰겠죠.

더 확실하게 해봅시다. 우리는 2번 선지에서 ‘거우루엣 그르멜’이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것을 알았고, 이 자연스러운 구성 사이에 ‘제’라는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보기> 정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쓰이는 ‘귀엣말’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네요.

<보기>를 통해 ‘귀엣말’과 ‘거우루엣’의 구성을 확실하게 익혀두고, 1번 선지와 2번 선지에서 얻은 결과를 이용해서 선지에서 묻는 내용을 확실하게 체크할 것까지 요구하는 선지였네요. 이렇게 앞 선지나 문제를 통해 얻은 내용을 다음 선지, 문제에 활용하는 ‘문제의 연계성’까지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아무 체계 없이 풀면 엄청나게 헛갈릴 거예요. 이렇게 필연적인 사고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제 해설에 녹아있는 사고의 흐름을 확실하게 파악해보세요!

④ ‘거우루엣’의 ‘엣’은 ‘에 있는’에 해당함을 미리 정리해주었습니다. ‘귀에 걸다’의 ‘에’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고 ‘있는’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죠? 절대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물론 문법적 지식이 부족했거나 ‘거우루엣’이 ‘거울에 있는’임을 미리 정리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였겠지만요.

⑤ ‘귀엣말’은 15세기를 기준으로 ‘귀에 있는 말’로 읽혔을 겁니다. 역시 1~3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것이죠?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되어 구를 만드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니 ‘통사적 합성어’의 일종이었겠네요. 하지만 ㉠을 보면, ‘귀엣말’은 현재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15세기와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되겠네요! 역시 <보기> 정리만 잘 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묻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만 생각해 주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잘 할 수 있죠?

필연적 문제풀이를 위한 다양한 태도들 중 ‘발문 확인’ 및 ‘<보기> 정리’의 중요성, 그리고 ‘문제의 연계성’이 강조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잘 해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 7. ③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선택률 | 3% | 19% | 22% | 29% | 27% |

- 역시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약간의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기에, 관련 개념이 탄탄하다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① ㉠는 ‘체언+체언’의 구성입니다. ‘가락’이라는 체언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이쁘게 붙어 있네요.

② ㉡는 ‘용언의 관형사형+체언’의 구성입니다. ‘빠빠한’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이쁘게 붙어 있네요.

③ ㉢는 ‘용언 어간+용언 어간’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읽어갈무리하다’는 ‘용언 어간(읽-)+연결 ’어미‘(-어-)+용언 어간(갈무리하)’의 구성이네요. 어간끼리 붙어야 하는데 어미가 붙었으니 애가 답이었습니다. 사실상 문법 문제네요.

④ ㉣는 ‘용언 어간+체언’의 구성입니다. ‘부드럽’이라는 용언 어간에 ‘국수’라는 체언이 이쁘게 붙어 있네요.

⑤ ㉤는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체언’입니다. ‘새콤달콤’은 독립적으로는 쓰이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어근이고, ‘국수’는 체언이니 맞는 선지네요.

\*FAQ\*

Q : ‘새콤달콤’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일단 문제에서 ‘새콤달콤하다’의 형태로 제시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감으로 생각해 보아도 ‘새콤달콤’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법(언어) 문제에선 ‘경험’을 통한 ‘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꽤나 많습니다. 문법 문제풀이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세요. 손에 잡히는 대로 풀어보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감’이라는 것이 생길 겁니다.

7번 문제는 사실상 지문형 문법 문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지문형 문법 문제 역시 이렇게 비문학화되고 있는 추세이니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특히 6번 문제 같은 ‘필연적 문제풀이’가 필요한 문항 역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것 역시 말이죠.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  
행된다고 믿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  
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  
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인간이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  
하였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잡으셔야겠죠. ‘시간순 서술일 수도 있다는 생각 + 사람들이 나왔  
으니깐 그 사람들의 주장, 즉 정의를 잡아야겠다는 생각!’ 아무튼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신이 야기한다  
는 자연재해, 천체 현상을 너무 무서워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에피쿠로스는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자 ‘자연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내용 정리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에피쿠로스  
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의 주장을 체크해보니 ‘자연학’을 바  
탕으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두려움을 깨우고 행복에 이르려고  
했다! 라네요. 그럼 화제는 뭐 너무나 쉽게 ‘에피쿠로스의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고 행복에 이르게 해주는 사상’이 될 것입니다. 에  
피쿠로스는 어떤 사상으로 저 내용들을 이루고자 했을까요?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  
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  
신론(理神論)적 관점을 주장한다. 그는 불사하는 존재  
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와 같  
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  
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이 지문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에피쿠로스의 주장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신론적 관점’을 통해서  
인간의 세계를 신이 결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행복도 인간 스스로 완  
성한다! 라는 뻔한 말을 했네요. 이렇게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나왔  
다는 것, 그리고 그 주장이 결국 ‘신은 인간한테 아무것도 못하  
니까, 쫓지마 애들아!!’이라는 것만 인지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  
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  
도 고통을 받는다.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생  
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  
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이 미세한 입자  
로 구성되어 있으니 사후 심판도 없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했네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  
해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주세요. 그게 화제잖아요.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원자의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  
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 나가는 우  
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주는 이러한 원자  
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우주 역시 우연의 산물이라  
고 본다.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  
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한  
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을 인간이 필연성에 얽매  
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이었습니다. 이 자연  
학을 통해 우리는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  
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문단에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결정론  
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에피쿠로스의 주장으로 이제  
‘비결정론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이네요. 차이점이니까 체크가 되  
면 좋겠지만, 시험장에선 매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냥 ‘에피쿠  
로스 → 비결정론!’ 이 정도만 머릿속에 담아둡시다.

그러면서 뭐 원자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결론은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뜬금없는 정보들이 나오더라도 그 정보의 결  
론과 그 역할만 생각하면 돼요! 우연적 운동이라는 결론은 인간의  
삶에서 신의 섭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결국 인간  
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준다는 ‘역할’을 하고 있  
네요. 진짜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느낌 오시죠?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 나간다.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에피쿠로스는 '윤리학'을 바탕으로 행복까지 이끈다고 합니다. '결국' 이후부터 지문 내용을 정말 이쁘게 잘 정리해줬네요. 이정도 지문은 아무렇지 않게,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에피쿠로스 주장 말해줄 거라고 소리치고 있고, 끝까지 정말 그 주장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상태로 문제 풀어 봅시다.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
|             |

### 8. ②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선택률 | 6% | 88% | 1% | 2% | 2% |

② 화제에 민감한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에피쿠로스의 주장을 소개한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2번 밖에 없네요.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이해도 나왔구요. 1번을 하신 분들은 화제를 생각 안 하고 읽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허겁지겁 찾아보시고, 결국 오답을 고르게 된 케이스입니다. 성립 배경이 아닌 그 주장 자체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화제를 묻는 문제는 무조건 한 큐에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화제를 찾으려는 태도가 갖춰진다면 가능해요.

### 9. ④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선택률 | 4% | 2% | 3% | 89% | 2% |

① ⑤은 인간이 신에게 두려움을 갖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은 중간 세계에서 있으니까 쫓지마!'라고 했죠.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두려움 자체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과 ㉡은 결과적으로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② 우주가 신에 의해 운행되면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다 깨지죠! ㉠부터 틀렸고, ㉠과 ㉡이 사후에 대해 탐구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틀렸네요. ㉠은 사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탐구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은 행복과 관련된 내용이니깐요.

③ 일단 ㉠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은 그런 내용인 한데 '탐구하는 이유'는 아니죠? ㉢ 역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벗어난 이후 행복에 대한 내용이기요.

④ ㉠과 ㉡은 모두 인간이 '잘못된 믿음', 즉 신이 모든 걸 통제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이고, ㉢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애가 답이네요. 단순히 내용일치라서 맞는 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선지가 첫 문단 해설에서 말했던 '화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대부분의 정답 선지는 화제와 직결된 정보일 테니까요.

⑤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위치...?? 그런 건 나온 적이 없죠. 신이 존재하는 위치 (중간 세계)는 언급을 했지만요. 인간이 우주의 근원을 연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없으니까 완전 틀린 선지네요.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가 아닙니다.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어떤 흐름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지, '화제'를 묻는 문제예요!

### 10. ⑤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선택률 | 3% | 3% | 30% | 7% | 56% |

- 처음으로 등장한 비판 문제네요. 비판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비판 문제의 포인트를 정리하고 갑시다. 비판은 쉽게 설명하면 '다른 이의 주장을 까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비판'의 두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까지 않는 것', 즉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주장을 깎아내려야 하는데,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말해주거나 옹호하는 경우엔 비판이라 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주장이 아닌 것', 즉 '한 적 없는 말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적절한 비판이 되려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공격해야 해요. 하지도 않은 말을 공격하면 적절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은 대부분 후자

입니다. 단순히 까고 있다고 적절한 비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주장’을 ‘까야한다!’

ㄱ. 신이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롭다,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 모두 에피쿠로스의 주장입니다. 또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지 말라 하는 것도 에피쿠로스의 주장이었죠. 에피쿠로스를 계속 옹호하고 있는데요!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ㄴ.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 이걸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자유 의지의 단초가 될 수 없다며 까고 있으니, 적절한 비판이네요.

\*FAQ\*

Q :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A : 알 수 없죠! 지문 속에서 말을 안 해줬으니까요. 어찌됐든 비판 문제에서 찾을 건 ‘비판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연적 운동 = 인과 관계 x’라는 ‘비판의 내용’에선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이용해서 선지를 판단하게 하려면 반드시 지문 속에 근거를 넣어둬야 할 거예요. 이처럼 비판 내용의 적절성을 따질 근거가 지문 속에 없다면, 비판을 적절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거기에만 주목해 주세요.

ㄷ. 죽음에 대한 두려움 = 에피쿠로스의 주장 맞죠? 그리고 이걸 까고 있으니 적절한 비판이네요.

ㄹ. 자연재해를 무서워함 = 에피쿠로스의 주장 맞고, 역시 이걸 까고 있으니 적절한 비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비판 문제는 위의 두 가지 포인트(옹호하는 내용, 주장한 적 없는 내용)만 조심하고, ‘주장을 깬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나오고 나올 때마다 오답률이 높은 유형이니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 11.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7% | 7% | 5% | 79% |

- <보기> 문제는 항상 <보기>부터 정리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기>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네요. 에피쿠로스와 정반대로 대치되는 주장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문제 풀어 봅시다.

① <보기> 정리를 통해 알 수 있죠? 이 선지 내용의 생각은 <보기>를 보는 순간부터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②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다는 <보기> vs 우주를 비롯한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에피쿠로스!

③ <보기>야 당연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겠죠. 신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니까요. 거기에 에피쿠로스도 신의 존재는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장 간의 공통점/차이점을 묻고 있네요.

④ 네 이것 역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기>는 신이다 결정한다, 에피쿠로스는 ‘윤리학’을 통해 인간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한다!

⑤ 신의 영향력이요? 에피쿠로스가 신의 영향력을 인정했다는 걸 맞다고 했다면, 지문을 안 읽은 거죠. 결국 주장(여기선 사실 화제 그 자체지만) 체크가 핵심이었네요.

쉽지만 주장 체크, 비판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을 배울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잘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12~17] ☆☆

역시 <보기> 먼저 확인하고 갑시다!

〈보 기〉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 준다. 그에 따르면 고희의 '구두' 그림에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구두(=존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속의 구두에는 들일을 나서는 농부의 고단한 삶, 해질 무렵 들길을 걷는 그의 고독이 드러나 있으며, 아울러 대지의 습기와 다 익은 곡식의 풍요로움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구두에 감추어진 '존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구두'와 같은 예술적 도구에 감추어진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굳이 이용하자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걸 생각하면서 읽기엔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그냥 바로 지문 읽어봅시다.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밭바다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쭈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집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전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차레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구두에 고향의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고 합니다. 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계절은 겨울이네요. 이런 시간적 배경 아무렇지 않게 체크해주시고, 부끄럽다는 반응과 함께 구두가 고향의 풍경을 담아왔다는 내용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이해해서, "나조차도 잊고 있는 고향의 소중함을 구두가 대신 담고 있어서 부끄럽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정말 훌륭하겠구요.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은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은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니

꿨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네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이 작품은 간단하죠? '봄'이라는 계절에, '남촌'이라는 곳을 보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립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구요. 이 외엔 알기 어려우니 딱 이 정도로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다)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바깥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러 상시(常時)과져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갖  
 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닫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디에 가 머무를꼬

-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

해가 지고 밤을 새울 만큼 오랜 시간동안 한숨, 눈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그리워서였어요! 어머니의 소식도 궁금해하고, 갈 곳도 없다며 슬퍼하고만 있네요. 이 정도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문제 풀어봅시다.

12.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0% | 6% | 8% | 6% | 40% |

- 공통점 문제네요. 약간 큰 범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답의 후보’부터 골라야겠죠? 음... 그리 거시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짜증나지만 1번부터 다 확인해봅시다.

① (가)부터 (다)까지 모두 자연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나)의 경우 이게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FAQ\*

Q : ‘그립다’는 부정적이 반응이 있고, 이를 해소하고자 ‘영’에 올랐는데 ‘구름’이라는 자연물이 방해하고 있으니 ‘그립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 :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뒤까지 읽어보면 조금 다르죠.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노래는 들린다고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노래라는 긍정적인 요소(<2>에서

분명 노래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가 들린다고 했으니, ‘구름’이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오히려 ‘구름 같은 것이 있어도 나는 즐거워!’라는 말이므로 ‘구름’이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 ‘독해’한 것이라는 점, 받아들일 수 있죠?

② 대조적 소재를 ‘열거’하고 있는 건 딱히 보이지 않네요. 허용하기 힘들겠어요. 애초에 너무 미시적이라서, 굳이 열심히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답일 확률이 매우 낮아요.

③ (가)의 경우엔 진짜 억지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와 (다)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난다구요? (나)는 과거 이야기 자체가 없고, (다)는 과거나 현재나 어머니가 없다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허용하기 어렵네요.

④ 세 작품 모두 무언가 교훈을 얻기 보다는 자신의 반응만 제시하고 있죠? 허용하기 어려워요.

⑤ ‘구두’, ‘보리’, ‘달’이나 ‘산’ 같은 친숙한 사물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애초에 ‘친숙한 사물’이 틀린 말이기도 어렵겠죠?) 각각 ‘고향’, ‘남촌’, ‘어머니가 계신 곳’이라는 공간에 마음이 향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물어봤는데, 이 정도까지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3.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 | 3% | 66% | 11% | 16% |

① (가)와 (나)의 계절적 배경이 동일하다구요? 우리 ‘겨울’, ‘봄’이라는 시간적 배경 정도는 숨 쉬듯이 체크하고 있죠?

② 출세하고자 하는 의지... 좀 너무하네요. ‘의지’와 같은 엄청난 ‘반응’은 웬만한 근거가 있지 않고서야 허용하기 어려워요.

③ (가)의 ‘강물 소리’는 고향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와 같은 ‘고향의 풍경’을 담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했어요. 이는 ‘고향’은 당연히 담아내야 하는 풍경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맥락에선 ‘고향’이 긍정적 대상임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또 (나)에선 ‘노래’를 ‘좋다’는 반응과 연관짓고 있으니 역시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남풍’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남촌’과 연결되는 곳이니깐요.

그런데 ‘후풍’은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경하는 세계, 즉 어머니가 계신 곳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⑤ (나)의 구름은 ‘남촌’을 가리고 있으니 소통을 차단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의 구름은 ‘따르고저 뜨는’ 것입니다. 나를 따른다면 ‘어머니’와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 때문에 허용하기 어렵겠네요.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적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4.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7% | 10% | 76% | 4% |

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여기서 고민하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맞는 선지예요.

②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이라는 의성어의 변화가 보이네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나)에는 이런 의성어의 변화가 없으니 맞는 선지네요.

③ (가)는 연 구분 안 한 것도 맞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찰적 어조도 허용할 수 있겠지요. ‘성찰’이라는 개념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건 아시지요?

④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가 있다기엔... ‘노래’라는 소재가 추가된 <1>과 <2>의 어조가 너무 똑같지요? 허용하기 어렵네요.

⑤ 자신을 강하게 질책하는 느낌의 (가)보다는 (나)가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지요? 이 ‘감’만 오면 됩니다. 애초에 ‘봄’, ‘노래’ 같은 따뜻한 이미지를 채용하고 있기도 하구요. 대구법은 워낙 잘 나타나니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5.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5% | 7% | 11% | 6% | 71% |

① 일단 이 작품의 계절은 겨울이기도 하고, [A] 부분에 ‘기쁨’이라는 반응을 허용할 만한 근거도 보이지가 않네요.

② 구두에 대한 ‘연민’이요...?? 이걸 뭘 근거로 허용하나요...

③ 구두의 도구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 이걸 허용하신 분들은 대체 어느 지문을 읽으신 겁니까! 허용하려면 반드시 ‘근거’를 가져와야해요.

④ ‘초면’과 ‘구면’은 각각 ‘구두’와 ‘나’를 나타내는 시어들입니다. 이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 지문을 안 읽은 거지요? 전체적으로 구두는 고향을 담았는데 화자는 못 담은 상태예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⑤ 구두는 분명 나와 차이가 있는 존재이지만, ‘내 구두’라는 점에서 나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A의 B라는 구조에서는 A와 B가 동일시된다는 것 배웠죠?) 이런 구두가 고향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은, 나도 고향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나’는 고향을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이 선지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고향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문학은 참으로 신기한 영역이네요.

16.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 | 3% | 77% | 11% | 5% |

① 네 그러네요.

② 네 그러네요... 설마 ‘유기적 연관성’에서 고민하신 건 아니지요?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아야 문학 문제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③ 하나도 안 동일하네요. ‘동일’이라는 말이 허용되려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아야 하는데, <1>과 <2>도 ‘실어’와 ‘들려’가 다르고, <3>은 아예 다르네요.

④ 네 그러네요. 3번 선지 해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⑤ 네 그러네요... 모두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7.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 | 2% | 5% | 3% | 86% |

- 각 시어의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적힌 말 그대로 독해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해’입니다. 애는 그냥 화자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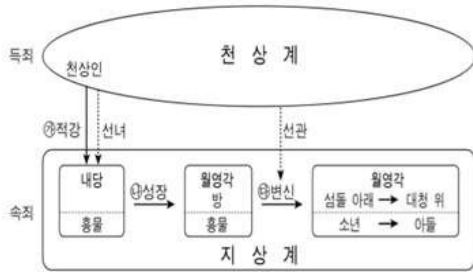
다려온 ‘시간’과 관련이 있는데요. 한편 ‘달’은 기다리다 보니 지나는 시간입니다. ‘산’은요? 막힌 길에 대응하니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내’와 ‘새’는 모두 어머니를 보기 위해 화자가 되고 싶어하는 대상들이네요. ‘내’와 ‘새’를 한 묶음으로 한 5번 선지가 정답이겠습니다.

[18~21] ☆☆☆

이번에도 <보기> 먼저 봐야겠죠?

〈보기〉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화소를 **적강화소(謫降話素)**라 한다. 이 화소를 수용한 「김원전」에서 공간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고, 천상계와 지상계는 주인공 김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통한다. 윗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소설도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주인공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네요. 천상계와 지상계를 왔다갔다하는 ‘김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살펴 보면서 읽어봅시다!

**하루는 승상이 식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담**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흥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오?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대굴대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

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흉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어느 날 승상이라는 사람이 내담에서 부인을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저것은 그래도 선녀가 해산까지 해줄 정도였는데 뭔가 있겠지. 기다려보자.’라고 말이죠. 그러고 저녁밥을 먹는데, ‘그것’이 신기하게 밥도 잘 먹고 그랬다네요.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 승상 부부가 ‘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노복들에게 명령해서 월영각이라는 곳에 원을 데려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원이가 밥만 먹고 방이 터질 듯 커지기만 해서 승상 부부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상태로 어느덧 10년이 흘렀어요.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포인트들 체크하면서 읽고 있죠? 계속 가봅시다!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나이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가 어이하어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승상과 부인이 집에 돌아오니 내실이 텅 비어있었다고 해요. 의혹이 가득했는데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길 갑자기 월영각에 소년 한 명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대요. 가보니 소년이 절을 하면서 자기가 원이라고 하고, 묘시에 있었던 선

관과의 일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걸 듣고 승상 부부는 놀라고 기뻐하면서 원이 등을 어루만지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술자의 개입을 살짝 넣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전형적이고, 우리가 중요시하는 포인트 위주로 체크하며 읽었다면 흐름 파악도 수월했네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가 단순히 내용을 요약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중요시하는 ‘포인트들’ 위주로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러 가봅시다.

### 18.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6% | 3% | 2% | 87% | 2% |

① 김 승상은 **홍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았죠. 아니, 그 누구의 탓이라고 하지도 않고 ‘선녀가 데려다줬으니 뭔가 있겠지’ 하면서 기다려 보자고만 했어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허용하기 힘들겠네요.

② **홍물**이 밥을 먹고 나서 부인의 심리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웃고 있어요. 심리 체크만 해줬다면 쉽게 허용할 수 있었겠어요.

③ 노복이 감히 부인의 태도를 비웃다니 말도 안 되죠? 이것도 심리와 관련된 선지네요.

④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라는 표현 보이죠? 이걸 근거로 해서 쉽게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서술자의 개입 부분에 나온 그 이웃 같은데,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고 했지 의혹을 해소했다는 말을 허용할 근거는 나온 적이 없네요. 애도 허용하기 힘들겠어요.

이 문제는 인물의 심리를 찾으며 읽었는지를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거듭 강조합니다. 소설의 경우 문제를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포인트를 미리 찾고 빠르게 푸느냐도 중요해요! 포인트들을 잘 찾으면 지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 19.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6% | 10% | 20% | 41% | 23% |

①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이것저것 하지는 않죠. 사람이 아닌 흉물로 인식되고 있으니 ‘이것’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김원은 천상계에서 적당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김원이 천상계 사람이다보니 변신의 과정에서 천상계 사람인 선관이 개입했다고 할 수 있겠죠.

③ 김원이 흉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밥을 먹게 되고, 그것을 신기하게 여긴 승상 부부가 ‘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흉물로 인식되던 김원을 비로소 사람이자 자식으로서 인정하게 된 거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3번 선지를 허용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허용 범위가 조금씩 잡히시나요? 생각보다 유하게 허용할 수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있어야 한다!

④ 변신의 결과를 비복이 김 승상에게 보고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하나요? 비복은 월영각에 앉아 있던 소년이 김원인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복이 ‘이상한 소년이 있어요!’라고 한 것이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자 관계인 것을 알지도 못 했는데 어떻게 정당성을 제시해요! 비복이 그 소년이 김원인 것을 알았다고 해도, 비복이 인정해준다고 정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허용할 수 없는 근거가 가득한 선지였습니다.

⑤ 이걸 고르고 틀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김원이 변신 이후 아버님을 찾고, 절을 하며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등의 말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허용이 가능합니다.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말이 된다면 허용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4번 선지의 경우에는 비복이 김원의 정체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부자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구요! 아리송하더라도 이 기준을 계속해서 같고 닦아주세요. 다행히도 수능에서는 훨씬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6평, 9평 문제를 통해 계속 연습하다 보면 수능에서는 문학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예요.

20.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 | 5% | 17% | 70% | 4% |

① ㉠의 공간 이동은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지상계로 적당당하는 것이네요. 주인공은 당연히 이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10년간이나 허물을 덮고 지상계에 있어야 하는데 능동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② 성장과 변신은 적당에서 비롯된 것이 맞죠. 김원이 죄를 지어 적당당하지만 않았어도 성장하고 변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③ 천상계에서는 죄를 지으면 흉물이 되어 지상계로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상계에서는 사람의 몸에서 흉물이 나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겠죠. 이런 점을 ‘지상계 나름의 질서’라고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성장에는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지만, 변신은 김원과 천상계 사람인 선관이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도 틀렸고, 지상계의 의지로 천상계의 질서를 구현한 것도 완전 개소리죠. 지금은 천상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럼 4번이 정답이네요.

⑤ 변신의 증거물, 하늘의 책 3권과 허물이 있었죠? 천상계의 물건이 지상계에서 인물들에게 보이고 변신의 결과를 확인 받고 있으니, 지상계와의 소통을 통해 천상계의 질서(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끝나면 벌이 해제된다.)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역시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문제들이었어요! 문학은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맙시다!

21.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81% | 2% | 15% | 1% | 1% |

- 사자성어는 스스로 찾아보는 게 좋겠죠?



# Day 3

[1~6] ☆☆☆☆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밑줄이 참 많죠? 이렇게 많이 치셔도 좋고, 보기 불편하니 그냥 안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유학, 수기, 치인, 성인, 율곡 이이, 성학집요'라는 많은 개념들의 '정의'를 체크하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 이 개념의 정의는 이거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가달라는 거죠. 이렇게 한 번 인지만 하고 넘어가도 생각보다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돌아오면 되죠 뭐. 이 정보들이 모두 화제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 모두 1문단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지문은 '유학'에 대한 지문이고, 그 중에서도 유학의 이상 사회 구현을 소망했던 '율곡 이이의 이론'에 대한 지문이라는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율곡 이이의 주장이 결국 지문의 화제가 되겠어요. 이와 더불어 위에 **폭탄처럼 쏟아졌던 정보들이 모두 '율곡 이이'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까지 해주면 됩니다.**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태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고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일단 율곡은 '수양론', '경세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애들 정의 가볍게 체크해주시고, '이기론'의 정의도 체크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이, 기, 이기지묘'의 정의까지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의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엄청난 지문이에요. 외우는 거 불가능하니까 최소한 위치는 기억을 합시다. 이 정보들의 역할(율곡의 주장 설명)을 토대로 말이에요! 처음엔(2문단에선)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핵심은 율곡은 '이'와 '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를 통해서 유학의 이상 사회를 소망했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율곡이 뭐라고 했는지'입니다. 이게 바로 화제니까요. 모든 정보는 여기로 모이게 될 겁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기론을 바탕으로 수양론을 설명하려 하네요. 우리는 이제부터 '율곡의 수양론'에 대해서 읽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를 끊임 없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율곡은 수양론의 기반으로 '이통기국'을 주장했다고 해요. 이거 정의 체크해주시고, 이통기국이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졌다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경, 궁리, 역행' 등을 통해 (이들의 정의는 체크는 해야겠지만 외울 수는 없겠죠? 모두 '기질 변화'를 위한 수양 방법이라는 것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수양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수양론'이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졌대요!

아이고 힘들다... 정의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테지만, 이 위

치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기억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보의 역할'을 토대로 '지문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평가원은 절대로 정보를 막 던지지 않거든요. 지금 율곡의 이기론을 설명하고, 이기론을 통한 수양론, 경세론의 실현 방법을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 정보들의 역할을 토대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선지에서 물어보는 개념의 위치가 어딘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제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법제 개혁론이 나오는데, 율곡은 ‘만언봉사’라는 책에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뭘 읽고 있죠? 그렇죠 법제 개혁. 그럼 이 법제 개혁이라는 정보는 왜 나온 건가요? 즉 역할이 뭔가요? 네 그렇죠. 율곡의 ‘경세론’이죠? 이 생각을 하면서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정보 하나하나 체크하기만 하면, 끝나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화제인 ‘율곡의 주장’을 쭉 체크하면서 법제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경세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①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②이 지침이 앞으로든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③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④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

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율곡의 법제 개혁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선 법의 체계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사안에 대한 지침에서 시작하는 수교,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을 뽑은 록, 그 중에서도 개편한 것들은 ‘대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개념들의 정의를 체크하면서 ‘수교 → 록 → 대전’ 순서로 더 대단한 법이라는 걸 체크하면서 가봅시다! 그래서 율곡은 이 법들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정보인 ‘율곡의 주장’에 모든 정보를 모으면서 읽어주세요! 하요!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위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아 그런데 아직도 율곡 이야기를 안 하네요. 일단 릴렉스하고 다시 체크해봅시다. 경국대전은 이런 엄청난 대전들을 모은 법전인데, 애를 ‘양법미의’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기본 법전의 역할을 했고, 개정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400년간 개정되지 않은 거니까 엄청 잘 만들기는 했네요. 그리고 이런 대전에 실린 법들은 또 ‘조종성헌’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수교 → 록 → 대전 = 양법미의 = 조종성헌’이네요. 이 법 체계는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율곡은 뭐라고 했을까요!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해

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율곡은 이런 조종성헌 자체를 변혁하자는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은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고 해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대네요. 원래 대전에 실리는 법들은 바꾸면 안 되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몇몇 법들은 '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의 실현을 위해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네요. 좀 허무하긴 한데 결국 이 지문이 말하고 싶었던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 혹은 '이'라고 부를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법들은 아무리 선왕의 법이라고 해도 바꾸자!"라는 거네요. 그래야 율곡이 말하는 수기치인을 통한 이상적인 유학 사회가 구현될 수 있으니까요.

개념이 정말 많이 나와서 힘들었지만 정보의 역할을 토대로 지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네요. 중요한 건 이 '흐름'을 파악해서 최소한 '정보들의 위치'는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             |
|-------------|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             |

### 1.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3% | 6% | 7% | 81% |

①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에 도달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했으니 성학, 즉 유학의 목표는 '하늘의 도리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문단에 나온 개념들의 정의를 잘 섞어놓은 선지입니다. 중요한 건 만약 판단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여기 나오는 말들이 1문단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② 그렇다고 했죠. 성학집요의 정의를 묻는 선지입니다.

③ 수교의 정의를 찾아보면 쉽게 지을 수 있네요. 수교의 정의가 정

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아도 '조선의 법 체계'라는 흐름에서 나왔다는 건 기억을 해야 합니다!

④ 역시 대전의 정의를 묻는 선지입니다.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⑤ 경국대전의 정의를 보면 조종성헌이 되어서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의로 조지는 문제였네요. 쉽죠?

### 2. ②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10% | 66% | 15% | 5% | 4% |

① 일단 '이'와 '기'의 정의를 찾으려 2문단으로 가야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바로 2문단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의 정의는 '물질적 요소'이므로 천재지변이 '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약간의 어휘적 측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에도 '이'가 존재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관련된 개념을 찾아보니 '이기지묘'가 보이죠? '이'와 '기'는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개념들입니다!

② 만물에 내재된 법칙은 '이'의 정의죠. '이'와 '기'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적어도 2문단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확인했다면 쉽게 고를 수 있는 선지네요. 중요한 건, 정보의 역할을 토대로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③ 율곡의 '법제 개혁론'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법 자체는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법제를 개혁하면 왕도나 오륜과 같은 '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곡의 주장을 묻는 선지예요.

④ 기질 변화론의 정의네요. '기질 변화'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⑤ 이통기국의 정의네요. 4번, 5번 선지같은 내용은 '어디서 봤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하는(정보의 역할) 2, 3문단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찾는 게 현실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핵심은 '빠르게'예요.

### 3.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18% | 5% | 61% | 12% | 4% |

① '수기'와 '치인'의 정의부터 잡아야겠네요. 1문단에서 이 개념들

의 정의를 보면 ‘이’와 ‘기’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땐 선지에서 묻는 다른 개념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기’의 ‘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까요? ‘기’의 정화는 ‘기질변화론’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정화의 대상이 아니었죠? 조금 복잡할 수 있었지만 선지에서 묻는 걸 생각하면 쉽게 지웠겠어요.

② ‘이기지묘’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기지묘’는 ‘이와 기가 분리됨이 없이 존재함’이라는 의미입니다.

③ ‘수양론’, ‘경세론’의 정의를 먼저 보니, 각각 ‘수기’, ‘치인’을 위한 것이 맞죠?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 즉 천도와 합일되는 성인이 되는 것이 유학의 목표라고 했으니 맞는 선지네요. 사실상 화제를 묻는 선지였어요.

④ ‘성인’은 기질적 병폐를 극복하고 천도와 합일된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선지에서 묻는 ‘성인’의 정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했네요.

⑤ ‘역행’의 정의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5번 선지는 ‘궁리’의 정의네요. 개념의 정의를 정말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거경’, ‘역행’, ‘궁리’가 어디있는지는 기억이 나죠?

#### 4. ①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선택률 | 60% | 7% | 7% | 15% | 11% |

- ‘율곡’과 ‘플라톤’을 비교하라는 문제네요. 미친 듯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볼 거예요. 일단 플라톤의 주장을 체크해 봅시다. ‘이데아’라는 이상 세계가 있고, 이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철학자 왕’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바로 율곡과의 공통점/차이점을 생각해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선지 판단하며 생각해 봅시다.

① 일단 플라톤의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율곡의 ‘이’는 물질적 요소라는 정의를 가진 ‘기’와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기지묘’구요. 바로 정답이네요. 공통점/차이점은 주장으로부터 온다! 할 수 있죠?

② 율곡의 ‘이’와 플라톤의 ‘이데아’의 정의를 보니 공통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네요. 공통점/차이점은? 정의에서 나온다! 잊지 맙시다.

③ 성인은 수양, 철학자 왕은 기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개념의 정의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개념의 정의가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④ ‘이’는 형체가 없으니 추상적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니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 애매하네요. 그런데 <보기>에서 ‘이데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네요. 그럼 무조건 틀린 선지죠? 또 또 정의를 묻고 있어요.

⑤ 율곡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으니 법제 개혁론 같은 걸 펼쳤겠죠. 역시 율곡의 생각이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플라톤의 이상 세계는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 5. ②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선택률 | 6% | 49% | 16% | 20% | 9% |

① 이게 사실상 이 지문의 화제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 그리고 그 경세론 실현을 위한 법제 개혁론.

② 자 이 지문의 화제가 뭐라구요? 한 마디로 ‘율곡의 주장’입니다. 율곡이 법제 개혁을 주장했던 건 잘못된 선왕의 법이 조종성현이라며 무작정 지키려고만 하는 상황 때문이었지, 국왕이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장을 정확하게 체크했다면 바로 고를 수 있는 선지입니다. 선조가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했다고 한 적도 없구요. 화제인 ‘율곡의 주장’이 어떤 맥락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지를 생각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겠습니다.

③ 조종성현 존중의 전통, 즉 오래된 선왕의 법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권세가들에게 법제 개혁하자고 소리치고 있죠.

④ 마지막 문단에서 율곡은 삼강, 오륜, 왕도와 같은 것은 변할 수 없다고 했고, 이를 위해 법제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죠. 이 선지들이 율곡의 주장을 묻고 있다는 걸 안 순간 마지막 문단과 비교하며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율곡은 이런 악법들은 ‘이’의 영역이 아니니까 바꿔야한다고 했어요!

6.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62% | 4% | 11% | 14% | 9% |

- 일단 <보기>부터 이해해 봅시다. 상황을 보아하니, (가)와 (나)라는 경국대전의 두 조항이 충돌하는 상황이네요. 여기서 숙종은 (가)와 (다)를, 대신들은 (나)를 적용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 판단해 봅시다.

① 숙종은 경국대전이 역대 왕들이 시행해온 '조종성현'이라고 했고, 이를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와 (다)를 통해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정답이네요. 숙종이 (가)와 (다)를, 대신들이 (나)를 적용하자고 하고 있다는 걸 미리 정리했어야 해요! <보기> 정리 잘 하고 계시죠?

② 뭘 개소리죠..? 숙종은 주구장창 (가)와 (다)의 내용처럼 경국대전을 적용하자고 하고 있어요.

③ 대명률인 (다)를 형법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위대한 '경국대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전의 규정을 아주 잘 따르는 것이죠.

④ 숙종은 (나)가 '양법미의'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전에 실린 법들은 결국 '양법미의'와 '조종성현'이 맞아요. 숙종이 주장한 건 이런 '양법미의'들 중에서 적절한 것들을 적절한 상황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들이 '양법미의'가 아니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⑤ 숙종은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나)가 아닌 (다)를 적용하자고 한 것이겠죠.

[7~8] ☆☆☆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된다. 이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포인터'라고 한다.

첫 문단부터 깔끔하게 화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인터'라는 것을 이용해 작동하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 대해 설명해주겠죠? 그들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러 갑시다.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들을 사용한다. 배열에서는 흔히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된다. 이때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해당 포인터 값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자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한 칸 당겨야 하고, 가나다순에 따라 '소백'을 삽입하려면 '지리'부터 한 칸씩 밀어야 한다. 따라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  
-> 배열 : 삽입, 삭제 자료 순번 ↑ → 나머지 자료 재정렬 시간 ↑

먼저 '배열'입니다. 배열의 핵심은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 순서만 알면 읽기와 쓰기가 아주 용이하네요!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각 자료 관리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죠? 일종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배열'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지우거나 넣을 때마다 나머지 자료를 재정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메모한 대로 많은 자료를 다룰수록 총 작업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겠네요! 이런 단점이 있다면 분명 보완을 하겠죠? 그 내용을 기다리면서 읽어 봅시다.

연결 리스트는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한다. 이 구조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다음 포인터'의 정보를 담은 공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정보에 의해 물리적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소백'을 삽입하려면 빈 저장소의 ㉔에 '소백'을 쓰고 ㉕와 ㉖에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포인터 값인 '1004'와 '1002'를 각각 써 주면 된다. 하지만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

이번엔 '연결 리스트'입니다. 일단 작동 원리를 보면, 자료만 저장하는 '배열'과 다르게 '다음 포인터'까지 한 저장소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공간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는 '배열'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저장 위치 상관없이 논리적 순서 유지 가능'이라는 성질이 곧 배열의 문제점이었던 '논리적 순서를 바꾸는 재정렬 시간'을 해결해주는 형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해주지는 않았지만, 늘 '생각'하며 글을 읽는 태도가 있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연결 리스트에서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다음 포인터'의 존재 덕분이죠. 혹시나 이해 못 했을까 봐 친절하게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네요. ㉔에 '소백', ㉕에 '1004', ㉖에 '1002'를 써 주면 '백두→설악→소백→지리→한라'의 순서로 저장되겠네요. 이처럼 예시를 통해 자료의 삽입, 삭제를 편하게 해주는 '다음 포인터'의 역할을 확실하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물론 애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크다고 해요. 다음 포인터까지 읽어야 할 테니까요! 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해결을 해야겠죠? 한 번 볼까요?

한편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는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다. 이 구조에서는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도 연결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연결 리스트보다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

역시 이런 문제를 보완해주는 '이중 연결 리스트'라는 것이 있네요. 애는 포인터 저장을 하나 더 해서 자료 접근 시간을 확 낮춘다고 합니다!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원리를 예시 등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으니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 봅시다.

지문 전반적으로 '자료 관리 구조'들을 비교/대조하는 형태였습니다

다. 일종의 문제해결도 들어있지만, 결론적으로 각 자료들의 작동 원리로부터 나오는 장단점들을 비교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네요. '배열'은 자료 접근을 빨리 할 수 있지만 삽입/삭제가 느리고, '연결 리스트'는 삽입/삭제가 빠른 대신 자료 접근이 좀 느리고, '이중 연결 리스트'는 '연결 리스트'보다는 자료 접근이 빠르다! 이 정도 잡아주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  |  |  |  |  |
|-------------|--|--|--|--|--|
|             |  |  |  |  |  |

### 7. ㉓

| 선지  | ㉑  | ㉒  | ㉓   | ㉔   | ㉕   |
|-----|----|----|-----|-----|-----|
| 선택률 | 4% | 6% | 57% | 16% | 17% |

㉑ '포인터'의 정의를 묻고 있네요. 저장소가 구현된 위치이니까, 자료에 접근할 때 당연히 이용하겠죠?

㉒ 이 지문의 화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각 관리 구조에 따라 접근 및 삽입/삭제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㉓ 자료 접근 시간에 문제가 있는 건 '연결 리스트'였습니다. '배열'은 논리적 순서에 상관없이 바로 접근이 가능했죠? 각 관리 구조의 작동 원리만 제대로 잡아냈으면 되네요.

㉔ '연결 리스트'의 핵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애는 삽입/삭제가 간편한 것이 최대 장점이었어요. 자주 변할 때 아주 편리하겠죠.

㉕ '이중 연결 리스트'는 '이전 포인터', '자료 이름', '다음 포인터'라는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역시 또 개념의 정의를 묻는 선지였어요.

### 8. ㉑

| 선지  | ㉑   | ㉒  | ㉓   | ㉔  | ㉕  |
|-----|-----|----|-----|----|----|
| 선택률 | 68% | 6% | 12% | 8% | 6% |

- 동일 수의 자료를 가지고 읽기, 삽입, 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위의 지문 정리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했듯이, '배열'은 읽기 시간이, '연결 리스트'는 삽입/삭제 시간이 아주 짧을 거예요. '이중 연결 리스트'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 사이 즈음이 될 것이구요. 이 정도 생각 잡아두고 선지 판단해 봅시다!

- ① 네 '배열'은 '연결 리스트'보다 삽입/삭제가 더 오래 걸립니다. 바로 정답이네요. 각 관리 구조를 제대로 비교해줬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죠?
- ② '이중 연결 리스트'는 세 가지 정보를 저장소에 저장하기 때문에, '배열'보다 메모리를 더 사용할 겁니다. 반대로 써둔 선지네요.
- ③ 삽입/삭제는 '연결 리스트'가 짱!
- ④ '이중 연결 리스트'는 세 가지 정보를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연결 리스트'는 두 가지 정보를 저장하구요.
- ⑤ '이중 연결 리스트'는 '연결 리스트'의 느린 저장 속도를 보완한 것입니다. 절대 답이 될 수 없겠죠?

[9~11] ☆

혁신의 확산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 집단의 문화나 기술, 아이디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지역 또는 사회 집단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말한다. 지리학에서는 혁신의 확산이 시공간적인 요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시간에 따른 공간 확산 과정을 발생기, 확산기, 심화·포화기의 3단계로 설명한다. 혁신의 발생기에는 혁신 발생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반면, 먼 지역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혁신 수용률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확산기에는 초기의 혁신 수용 지역에서 먼 지역까지 혁신의 확산이 일어난다. 심화·포화기에는 최초 발생원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수용률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점차 사라진다.

'혁신의 확산'에 대한 지문입니다. 정의 자체가 어렵지는 않네요. 체크해두고 계속 읽어보니 '시간에 따른 공간 확산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시간에 따라 '발생기 → 확산기 → 심화·포화기'로 진행되는데, 핵심은 각 시기의 '혁신 수용률'의 지역 간 격차네요. 애초에 이 정보들이 시간에 따른 '공간' 확산 과정이기에, 얼마나 많은 '공간'에 혁신이 수용되었느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혁신의 확산'에 대해 더 알아보려 가도록 합시다.

혁신의 공간적 확산은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으로 설명된다. 혁신 발생원과 잠재적 수용자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혁신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인접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전염 확산이다. <발생원과 수용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대면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혁신의 확산이 대중 매체보다 주로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도시 규모가 클수록 혁신 확산이 잘 이루어진다는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계층 확산이다. <계층 확산에 의해 규모가 큰 도시로부터 그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로 혁신이 전파된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령 거대 도시에서 발생한 혁신은 먼 거리의 대도시로 전파되면서 동시에 거대 도시 주변의 중소 도시에도 전파될 수 있다.

1문단에서는 혁신의 '시간에 따른 공간 확산'이었는데 이번엔 혁신의 '공간적 확산'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전자는 시간이 원인이 되어 공간들 사이의 수용률이 달라지는 것이고, 후자는 공간들 간의 관계가 원인이 되어 혁신 확산의 양상이 달라지

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항상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지문의 흐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 뒤론 '인접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전염 확산',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나는 '계층 효과'의 정의를 잡아주면서 가면 됩니다. '전염 확산'은 혁신 발생원과 수용자 간의 '거리'가 핵심이고, '계층 효과'는 '도시의 규모'가 핵심이네요. 이들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예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의 수용자 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초기에는 혁신 수용자의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포화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는 개별 수용자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혁신 수용자는 혁신을 수용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뉜다. 즉 혁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소수의 **혁신자**, 일정 기간 심사숙고하여 혁신을 수용하는 다수의 **전기 수용자**,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수용하는 다수의 **후기 수용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꺼려서 한참 지나서야 혁신을 수용하는 소수의 **지각자**가 그것이다.

이번엔 '혁신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 나오니다. 시간에 따라 '혁신자 → 전기 수용자 → 후기 수용자 → 지각자'의 순서로 수용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이네요. 정말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화제의 흐름을 잡는다! 이 하나의 교훈만으로 뚫어낼 수 있었어요.

|             |  |
|-------------|--|
|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  |
|             |  |

9.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1% | 2% | 4% | 91% | 2% |

① 수용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용자 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었죠?

② 도시 규모가 혁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층 효과'에 의해 '계층 확산'이 일어났죠? 이 정도의 정보량은 아무렇지 않게 건딜 수 있어야 합니다!

③ 후기 수용자나 지각자들은 남들이 수용한 뒤에야 혁신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겠죠?

④ 일정하다니요! 시간에 따라 수용자 수의 변화가 생기지만, 그 증가율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니다. 수용자를 네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소수 → 다수 → 다수 → 소수'로 증가한다고 하기도 했구요. 마지막 문단에서 '수용자 수'에 대해 읽으며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였네요.

⑤ 심화·포화기를 비롯해 시간에 따른 공간 확산의 3단계는 '혁신 수용률의 지역 간 격차'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었으니, 심화·포화기에는 당연히 수용률의 차이가 거의 없겠죠.

10.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2% | 1% | 1% | 95% | 1% |

-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①에서 말하는 대로 '대중 매체 <의 사 소통'을 고르면 됩니다.

- ① 지역 모임!
- ② 직장 동료들의 추천!
- ③ 입 소문!
- ④ 광고... 이걸 대중 매체가 힘을 발휘한 사례네요.
- ⑤ 손님들의 호평!

답을 고르는 건 아주 쉬웠지만, 발문을 확인하고 무엇을 찾을지 확실하게 골라놓고 들어가는 태도가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11.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2% | 5% | 88% | 2% | 3% |



ㄱ. '한 미술관'에서 '같은 내용'으로만 전시를 하네요. 이게 혁신의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ㄴ. '거대 도시'에서 '대도시'로 가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혁신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은 '계층 확산'의 예시죠?

ㄷ. 어디서나 사용된다고 했으니, 확산의 지역 간 격차가 거의 사라진 심화·포화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ㄹ. 시장에 나오자마자 구매한 사람처럼 혁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혁신자'라고 부르다고 했습니다.

[12~16] ☆☆☆

—〈보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문 역시 <보기>를 읽지 않으면 (가)를 읽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보기>에서 사실상 해석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권호문이라는 화자는 ‘유교적 출처관’에 따라 은자(숨어 지내는 사람)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고, 42세 이후에 정치계로부터 온 스카웃을 모두 거절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이거 잡고 가 봅시다.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떨워랑/드래랑/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돌/기나긴 밤을/한 허리를/머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이렇게 (가)나 (다)에 비평문이 제시되는 경우 또 다른 <보기>처럼

럼 읽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비문학 지문처럼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보기>를 읽듯이, ‘대충’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 보니 ‘리듬’에 대한 글이네요. 고전 시가의 리듬과 현대 시의 리듬은 ‘외적 규율’과 ‘내적 규범’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잡아 둡시다.

(가)

생평(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 평생 원하는 건 충효밖에 없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 이 두 일을 안 하면 짐승이랑 다를 게 없다.  
마음에 흐고져 하야 십재황황(十載惶惶)\*흐노라  
→ 마음에 갇추고자 해서 십 년을 허둥지둥했다.  
(과거 급제를 못 했다 정도겠죠.)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 생각이 이렇더니 공명(과거 급제)이 늦었다.  
부급동남(負笈東南)\*하야 여공불급(如恐不及)\*흐는 뜻을  
→ 공부해서 이루지 못할 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야라  
→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 것 같다.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 자연에 있으려니 임금님을 버릴 수 없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 임금님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을 얻을 수 없네.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흐노라  
→ 혼자 갈림길에 서서 갈 곳 몰라 한다.

<제4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 관직에 나아가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아가지 않으면 자연을 즐겨야 한다.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 똑똑한 군자는 이런 걸 즐기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흐오리라  
→ 하물며 부귀는 위기가 있으니 (부귀를 이룰 수는 없으니) 자연과 함께 살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 행장유도하니 날 버리시면 구태여 다시 구할까.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 자연 속에서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흐노료  
→ 내가 누구길래 좋은 인재이니 오라 말라 하나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흐가지라  
→ 성현들이 가신 길이 그동안 하나밖에 없겠냐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 자연에 숨거나 벼슬에 나가거나 도가 어찌 다르겠냐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텐들 어떠리  
→ 도는 다르지 않을 테니 자연이든 속세든 상관없다.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 시의 해석(물론 100% 맞는 해석은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제가 처음 보고 하는 그대로 제시한 거예요.)을 보기 전에 아셔야 할 것은, ‘고전 시가의 세계관’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전 시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자연’과 ‘속세’라는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연은 깨끗하고, 욕심이 없고, 아름다운 곳으로, 속세는 더럽고 먼지가 많고(‘홍진’이라는 표현 기억해 두세요. 붉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속세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욕심이 많은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이 세계관을 알고 있고, <보기>를 봤다는 전제하에 제가 한 것 정도의 해석이 가능해져요.

일단 충효를 이루려고 십 년을 허둥지둥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급제하지를 못 했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해서 이제는 못 이룰 것 같다는 ‘체념’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4수>에서는 어디로 갈지 몰라하는 방향의 반응도 보여 주고 있구요.

여기까지는 할 만한데, <제8수>와 <제16수>의 내용은 <보기>가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보기>에서 말한 ‘유교적 출처관’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출’은 벼슬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차’는 자연 속에 은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8수>의 내용은 ‘출’하든 ‘차’하든 할 거면 제대로 해야한다는 뜻이고, 본인은 ‘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거죠. (자연과 함께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16수>의 내용은 <보기>에서 말한 대로 42세 이후의 스카웃 제의를 거절하는 내용이네요. 자

기는 병들고 늙었는데 왜 부르냐! 라면서 겸손 떠는 거죠.

마지막 <제17수>에서는 자연이든 속세든 어디서든 도를 실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며 마무리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 화자가 자연을 지향하는 것인지 속세를 지향하는 것인지 애매한데, <보기>에 의해서 화자는 자연을 지향한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보기>는 슈퍼 갑이잖아요.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꿀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이 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들에서 보듯(어미 체크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상황 자체는 '회상'일 것이고,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서 장사를 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어머니와 누이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문제 풀어봅시다.

## 12.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72% | 6% | 15% | 3% | 4% |

- 공통점 문제는 항상 거시적으로, 답의 후보를 미리 정해두면서 풀자고 했습니다. '정서 강조', '주제 부각', '시상 형성', '시적 분위기 고조', '화자의 상황 제시' 등 당연한 선지들이 제시되어 있네요.

오우 전부 거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씩 체크해봅시다.

① 정서 강조는 당연한 것이니, 의문형 어미만 찾으시면 되네요. 겁나 많죠? 다행히 쉽게 출제되었네요. 이 정도는 웃으면서 고르시면 됩니다.

② '대화하는 방식' 이렇게 미시적인 건 시를 읽으면서 느껴지지 않으면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른 선지에서 정 고르게 없으면 그 때 확인하는 거예요!

③ 탈속성.. 이건 (가)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죠? '탈속성'을 허용하려면 속세를 벗어난 내용이 있어야 해요. (나)는 속세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④ (가)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계절적 배경이 없네요. (나)도 애매하지만 '손 시리게 떨던가'가 겨울이라 추워서 떠다고 '볼 수 있으니' 계절적 배경을 허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⑤ 의성어나 의태어는 찾아 보기 힘드네요. 자 이런 게 미시적인 것들입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이런 건 답이 되기 정말 힘들어요. 만약 이런 게 답이 되면 시를 읽을 때 푹푹 티가 날 거예요.

## 13. ②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6% | 43% | 31% | 10% | 10% |

① '부급동남'이 뭔지 모르면 각주로 가 봅시다. 공부하는 거래요! 공부해서 뭐하려고 그러나요? 부급동남 앞에 보니 '공명'이 보이죠? 공부하면 벼슬에 들 수 있나 봅니다. 벼슬에 들면 '성주'로 표현된 임금님을 섬길 수 있겠네요. 이처럼 시어들을 '속세 편/자연 편'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해요.

② '공명'이라는 단어만 알면 바로 고를 수 있네요. <보기>를 먼저 봤으니 이 선지를 확실하게 지울 수 있겠습니다. <보기>에서 화자는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모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에 반영되었다고 했어요. <보기>가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는 '정치 안 하고 자연에서 잘 살거야!'라는 시가 되는 것이고 (원래 고전시가의 공간은 '속세' 아니면 '자연'이라고 했죠?) 화자가 '공명'을 이루려고 한다는 2번 선지는 바로 틀린 선지네요. 이처럼 문학, 특히 시 문제에서는 <보기>가 감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습관을 들입니다. '성현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애매한데 화자가 '공명을 이루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해석이 정형화된 경우가 많아 <보기>의 해석을 '맞는 해석'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문제에 있는 <보기>라도 선지 판단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③ 자 이 선지도 '부귀 위기'를 알아야 판단이 되겠네요. 일단 부귀는 벼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속세'를 상징한다는 건 알겠죠?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위기'는 무엇이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risk 맞습니다. 한자가 똑같아요. 평가원이 정말 치사하게 물어본 선지예요. 강호는 자연이고, 부귀는 속세를 뜻하니 속세에서 위기가 있어 자연으로 왔다고 하면 나쁘지 않죠?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과하긴 했지만, 자연과 속세의 이분법적 사고는 확실하게 정리해주세요.

④ 지문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거십팔곡은 이 <제17수>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는 '성현이 가신 길들이 옛날부터 하나뿐이겠냐' 정도로 해석이 되어서 '자연이든 속세든 어디로 가도 성현이 가신 길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데나 상관없다.' 정도로 볼 수 있고, 은둔하거나 세상에 나아가도 도라는 건 어차피 똑같다. 이렇게 도가 다르지 않으니 '어디든 어떠냐'라는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어디든 어떠냐'가 참 애매한데, '속세든 자연이든 다 좋은데 어찌지~'라서 내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속세든 자연이든 다 괜찮으니 자연에 살아야지~'라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둘 다 말이 되니까 후자의 해석은 당연히 말이 되겠죠. 심지어 <보기>에서도 화자는 자연을 좋아한다고 뜻을 박아버렸네요. 물론 <보기>와 같은 후자의 해석이 학자들에 의해 정해진 해석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이 문제를 풀 때 전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어 길게 적어봤습니다. 전자처럼 생각하셨더라도 후자도 가능하니까 허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⑤ 빈천거는 '부귀 위기'에 하는 거니까 자연의 삶을 의미하겠죠? 자연 속에서도 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4번 선지 해설을 통해 알 수 있으니 적절한 선지네요.

꽤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듯이 고전시가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쌓이면 해낼 수 있는 경지예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된다면 아니 어찌면 이 교재를 다 끝낼 때만 된다면 고전시가는 너무 쉽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니다. 다 똑같은 말만 하거든요!

#### 14.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2% | 6% | 9% | 12% | 71% |

① 충효뿐인데 그걸 안 하면 금수(짐승)나 다름없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② 십재황황하는 등 '계교가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다'고 했습니다. (제2수와 연결) 이를 통해 '십재황황=공명 늦음=과거 급제 못함'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③ '행장유도'의 뜻을 각주에서 찾아보니 <보기>에 나온 '유교적 출처관'과 똑같네요.

④ 병들고 늙은 나를 왜 오라 하냐는 뜻이니 정치 현실로 가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네요. 이런 해석은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못할 테지만 선지를 보고 허용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한 해석을 찾는 게 아니라 선지의 해석이 타당한지 '평가'만 하는 겁니다.

⑤ '회보미방'의 뜻을 보니 재능 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보기>에서 화자는 조정의 권유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재능 낭비하면 안 돼~'라고 한다는 건 자신의 재능을 정치를 위해 쓴다는 뜻이겠죠. <보기>에서 화자는 정치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했으니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보미방'은 화자가 한 말이 아니라 화자를 꼬시려고 조정에서 한 말이에요. '회보미방하니 와라 마라 하냐'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건 쉽게 알겠죠?

#### 15.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2% | 3% | 89% | 4% | 2% |

① 네.. 선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네요.

② 눈갈, 은전이 '한'이라는 화자의 반응과 함께 제시되고 있으니 허용할 수 있네요.

③ 행복감??? 화자의 상황과 반응을 체크해보면 행복감은 절대로 허용이 안 되겠네요. 고생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한스러워 하고 눈물이 글썽인다는 근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행복하다

고 할 수 있나요.

④ 어머니가 ‘진주 남강’이라는 ‘오며 가며 보는 풍경’을 새벽이나 밤에만 본다고 했으니 바쁜 것을 허용할 수 있네요.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⑤ 이 정도는 뭐 웃으면서 허용할 수 있겠죠?

16. ③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9% | 8% | 69% | 6% | 8% |

① (다)에서 고전 시가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다고 했죠. 내적 규범 아닙니다. 이렇게 비평문이 제시된 경우에는 처음에는 꼼꼼히 읽지 말고 문제를 풀면서 필요하면 확인하면 됩니다.

② 앵 이계 규칙이라면서요..

③ 모음, ㄹ, ㅁ 같은 울림 소리(모르면 자음표 외우세요. 참고로 ㅛ은 초성의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로 치지 않습니다.)를 반복하고 있으니 리듬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화자의 정서 표출은 당연히 맞는 선지구요.

④ 외적 규율은 고전 시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묘한 삶의 생동감도 완전 개소리네요;

⑤ 심표는 현대 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비문학 문제와 다를 게 없어요.

[17~20] ☆☆☆

이번에도 <보기>는 없는데, (가)에 비평문이 있네요. 먼저 읽어보고 갑시다.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기> 역할을 하는 (가)를 읽어보니, ‘문학적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는 데, 과거형과 현재형을 주로 사용하는 순간에 대해 설명하네요. 그런데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의 의도적 변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서정지구요. 그럼 (나)와 (다)에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나타낸 서정시들이 나오겠네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 있구나~ 정도만 잡고 지문 읽으러 가봅시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곶이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끝은 선이 스스로 돌아 꼭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콧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서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시가 너무 어려워요. 전반적인 상황과 반응만 체크해봅시다. 일단 '봄밤'인데, 밤이 아름답다하고 여러 가지 옷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 말고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나머지는 선지에서 평가해봐요! 시간 표현은 여기저기서 쓰이긴 했는데, (가)를 적용하기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일단 넘어갑시다.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락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후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어머님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네요. 예닐곱 살 적 다다미방의 겨울은 정말 추웠고, 그때마다 아버지 품에 속 안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재'로 넘어 오네요. 이런 시간의 변화 잘 체크해야겠죠? 요즈음에도 추운 밤에는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해요. 그러다가 또 '오늘'로 넘어와요. 계속 시간이 바뀝니다!! 오늘은 한강교를 지나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네요. 아버지의 귀신을 본 걸 수도 있고, 한강의 물살이 그냥 아버지 같았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가 그림다고 하는 내용이겠죠? 아버지가 부재하다면, 그림다는 반응은 자동이니까요.

이 시는 그래도 과거형의 사용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삶의 과정과 흐름을 담은 사건들'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이 보이네요. 이 정도 체크했으면 됐습니다. (물론 못 해도 됩니다!!) 문제 풀어 봅시다.

17. ①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65% | 10% | 5% | 13% | 7% |

① '두견이 깊어가는 밤은 자연적 시간이니 허용이 되겠네요. 시의 모든 내용은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는 그냥 밤이라는 자연적 시간으로 남을 수도 있었는데,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이라는 글로 옮겨진 것이네요. 충분히 허용되고, 답은 쉽게 1번이네요.

②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는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고, (가)에서 이런 건 보통 현재형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도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으니까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없겠네요.

③ ㉡은 현재형이니까 틀렸네요.

④ '이 밤'과 '옛날'을 동시에 사용했으니까 과거와 현재의 통합적 인식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시간의 '정확성'은 너무 뜬금없네요. '이 밤'과 '옛날'이 정확한 시간이라고 보기엔 어렵겠죠?

⑤ ㉢에는 과거형이 쓰이지 않았어요. 애도 틀렸네요.

그냥 '허용 가능성 평가'라는 원칙을 가지고 매우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네요. 이 선지의 내용을 미리 찾아낼 필요는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기만 하면 돼요!

18. ②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 | 72% | 5% | 7% | 12% |

- [A]는 서정시가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하나하나 평가해봅시다.

① 유년 시절은 과거이고,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건 현재니까 둘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은 과거의 공간이네요. '현재' 위치라는 것에서 바로 틀렸네요. 시간이라는 화자의 '상황'을 집요하게 체크했다면 매우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겠어요.

③~⑤ 딱히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허용할 수 있는 말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3점인걸 보면, 평가원이 시간과 공간에 얼마나 예민한지를 알 수 있네요. 앞으로도 시간과 공간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합시다.

19.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28% | 5% | 12% | 6% | 49% |

① '곰아라 고아라' 등에서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확인할 수 있고, 갑작스레 시어가 변했으니 '리듬감 변화'도 허용이 되겠네요. 자신이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못 찾았다고 그냥 답으로 찍어버리면 안 돼요. 그럴 땐 오히려 넘어가야 합니다! 답을 고르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골라야 해요.

② '저고리' 같은 전통적인 소재를 이용하고 있고, 말투도 조선시대처럼 예스러워요. (옛날 같아요.) 허용 가능하겠네요.

③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거지이다'에서 확인이 되겠죠? 손을 흔드는 행위를 '버들'이라는 자연물에 빗대고 있으니까요. 역시 못 찾았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④ 자주색, 하얀색 등 색채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쉽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⑤ 말줄임표를 사용한 곳은 '호점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부분인데, 춤을 추고 숙이는 것은 '동적'인 상태인데 '정적'인 상태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 상황에서 동적

인 상태와 정적인 상태가 충돌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답은 쉽게 5번이네요.

20.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3% | 3% | 8% | 84% | 2% |

①~③, ⑤ 이런 선지들은 참.. 해설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 자체로 허용이 가능한 선지들이거든요. 만약 이들이 허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의 사고과정을 정리해서 질문해주세요. 아마 다들 쉽게 허용했을 겁니다.

④ 아버지의 내면의 의도가 '이놈들 다 죽여버릴거야!' 같은 것들이었나요? 아니죠. 아버지는 자식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따뜻한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내면이 '화자를 품어주던 가슴'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구요. 내면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어요.

시의 상황과 반응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허용 가능성 평가하기! 우리가 배운 이것으로 모든 시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 느껴봅시다. 특히 19번 문제 보세요. (나) 시의 내용은 정말 어려웠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시가 어렵더라도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객관적인 내용만 체크하고 선지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해줍시다.

〈보 기〉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실감 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별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북한군의 포로, 근원적인 인간성, 구성원 획일화 비판 등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네요. 이 내용 가지고 지문 읽어 봅시다.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쩔지 마음이 조급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훑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껓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기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번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겠이야이.”

“……”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야.”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

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씩은 춥다.”

“……”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이야,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야이.”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불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형’과 ‘동생’이 울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울고 있나요? 그렇죠.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힘든 상황이니깐요! 이렇게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보기>를 먼저 읽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아무튼 겨울밤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체크해두고, 쪽 읽어 가면 됩니다. 포로로 잡힌 극한의 상황에서 다리까지 아파오는 형의 모습, 그 속에서 서로 슬퍼하는 형제의 모습 등을 이해하면 그 걸로 충분해요.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걸지덜,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 걸논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별쪽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하니. 네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앙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리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잡스러워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낯색이었다.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어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꼭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걷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메면서,

“메철을 더 살겠다구 빼득대? 빼득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

뒤쪽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의 변화를 체크하면서 눈에 띄게 나빠지는 형의 상태, 그 속에서 슬퍼하는 동생의 모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형이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다면? 완벽하게 읽으신 겁니다. 이제 선지를 아주 빠르게 지워낼 수 있을 겁니다. 풀어 봅시다.

## 21.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3% | 5% | 3% | 5% | 44% |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한다구요?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을뿐더러, 인물을 회화화하는 건 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상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선지네요. 내용이해만 했다면 정말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② 내적 독백은 딱히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대화 위주로 전개되고 있죠.

③ 현재와 과거? 과거로 가는 장면이 있었다면 시간에 집중하는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④ 간접 인용 역시 딱히 나오지 않죠. 대화 위주의 서술이니까요.

⑤ 몇 번이고 반복되는 우는 모습, 눈 온다고 하는 행위 등을 토대로 성격을 구체화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어떠한 성격이라고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성격의 구체화’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모든 행위와 발화에서는 성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 22. ②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5% | 84% | 6% | 2% | 3% |

① 눈이 오는 걸 보고 아이처럼 좋아하고 있으니, 동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딱히 틀린 건 없죠?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② 형제 사이의 갈등이요? 이걸 고른다는 건 소설 내용을 이해하기 싫다는 거죠. 이 작품은 형제끼리 전쟁이라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갈등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③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을 형의 내면과 연결시킬 수 있으니, 역시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④ 절룩거리는 형의 걸음걸이 끝에 결국 죽고 말았으니 최후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⑤ 함박눈이 온 뒤 형의 상태가 아주 심각해졌으니,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 ⑤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2% | 3% | 9% | 3% | 83% |

- ①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니 동생이 자는 척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 ② 형이 다리가 아프다고 한 뒤 놀라서 돌아봤으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허용할 수 있겠죠.
- ③ 출다는 형에게 말없이 안기고 있으니 공감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허용할 수 있고, 공감하고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자동으로 허용이 되겠죠. '공감'이라는 말을 보고 '애매한데...?'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허용해낼 수 있어야 해요!
- ④ 형은 아픈데 본인이 대신 아플 수도 없고... 우리부터 안타까운 눈빛이 나오죠?
- ⑤ 형을 '무심'하게 바라본다구요? 역시 지문 내용을 이해했다면 바로 헛소리임을 잡아낼 수 있겠죠. 동생은 형에게 관심 100%인 상태입니다.

24. ④

|     |    |    |    |     |     |
|-----|----|----|----|-----|-----|
| 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택률 | 4% | 3% | 7% | 68% | 18% |

- ① '나상'이라는 말 자체가 '나체를 표현한 형상'을 의미합니다. 나체를 표현한다면 본연의 순수성을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나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제목은 주제를 담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네요.
- ② 네 뭐 그렇죠... 선지 내용 이상으로 설명할 내용이 없네요.
- ③ 모두가 건기만 하는 획일화된 상황.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허용하기엔 아무런 무리가 없죠?
- ④ 애초에 형이 공포에 무감각하지도 않고, 형제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친진성을 파괴하려는 의도도 아니죠? 딱히 저항을 하고 있지도 않구요. 역시 내용을 이해했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네요.
- ⑤ 곁을 수 없으니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고, 총에 맞았으니 희생을 한다... 허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선지네요.